



개교 30주년
포스텍 구성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포스텍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16. 11



목차

◆ 분석 결과 및 제언

◆ 교수 설문결과

◆ 직원 설문결과

◆ 학생 설문결과

※ 별첨. '대학발전을 위한 의견' 학생 응답 원문

포스텍 구성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결과 및 제언

- 표본 요약 (교수, 직원, 학생)
- 교수 인식 및 만족도 요약
 - 분야별/연령별 교수 인식 및 만족도
 - 분야별/근속연수별 교수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 분야별/연령별 교수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 교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론 및 제언
- 직원(정규직) 인식 및 만족도 요약
 - 성별 및 연령별 직원 인식 및 만족도
 - 성별/연령별 직원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 성별/근속연수별 직원 인식 및 만족도 교차 분석
 - 직원(정규직)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론 및 제언
-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요약
 - 학위 과정별 및 계열별 학생 인식 및 만족도
 - 성별 및 학년별 학생 인식 및 만족도
 - 성별/과정별/계열별 학생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론 및 제언

표본 요약 (교수, 직원, 학생)

교수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30대	9	8.1
	40대	42	37.8
	50대	40	36.0
	60대 이상	20	18.0
근속연수	5년 이하	26	23.6
	6-10년	16	14.6
	11-15년	18	16.4
	16-20년	12	10.9
	21년 이상	38	34.6
분야	이학	34	34.3
	공학	55	55.6
	인문사회	7	7.1
	전문/특수 대학원	3	3.0
합계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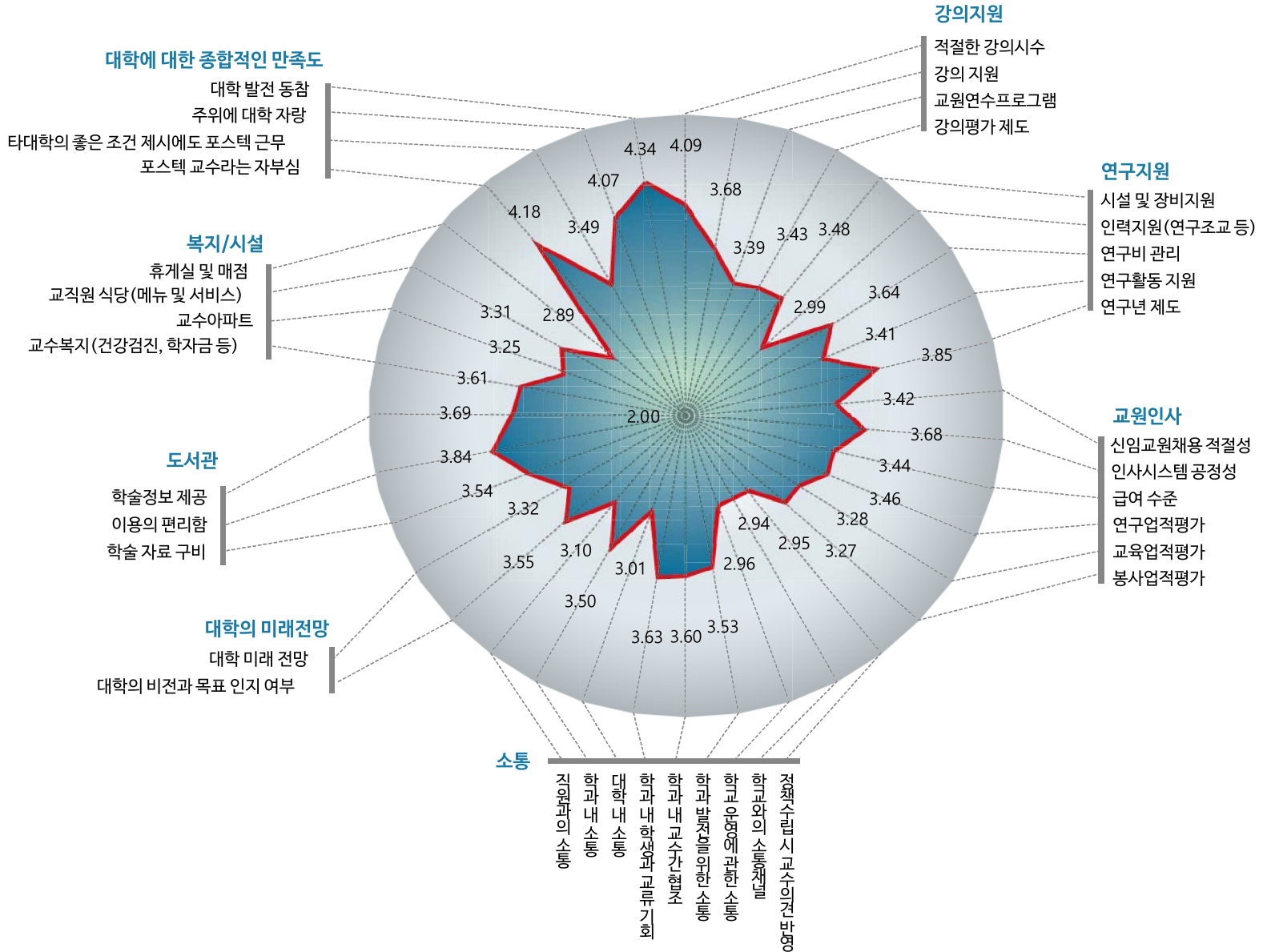
직원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남	103	80.5
	여	25	19.5
연령	20대	4	3.1
	30대	18	14.0
	40대	37	28.7
	50대 이상	70	54.3
근속연수	5년 이하	12	9.4
	6-10년	18	14.1
	11-15년	5	3.9
	16-20년	7	5.5
	21년 이상	86	67.2
소속	대학본부	84	66.1
	학과 및 대학원	28	22.1
	연구소 및 부속기관	11	8.7
	기타	4	3.2
합계		129	100.0

학생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남	595	74.7
	여	202	25.4
학년	1학년	60	7.5
	2학년	88	11.0
	3학년	89	11.2
	4학년	106	13.3
	대학원	454	57.0
계열별	이학	213	26.7
	공학	564	70.8
	특수/전문대학원	20	2.5
합계		7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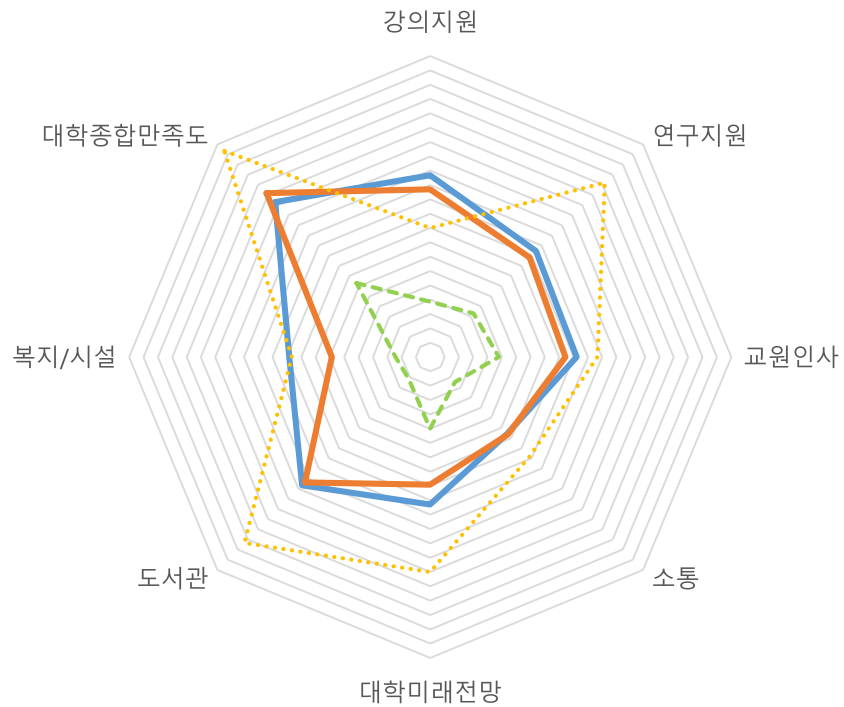
교수 인식 및 만족도 요약



분야별 및 연령별 교수 인식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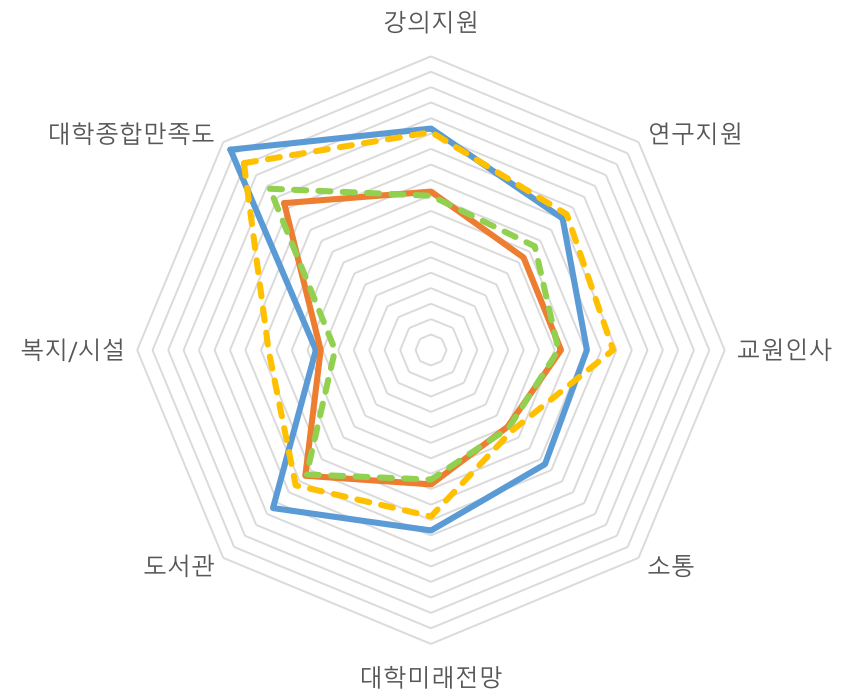
분야별

— 이학 — 공학 — 인문사회 — 전문/특수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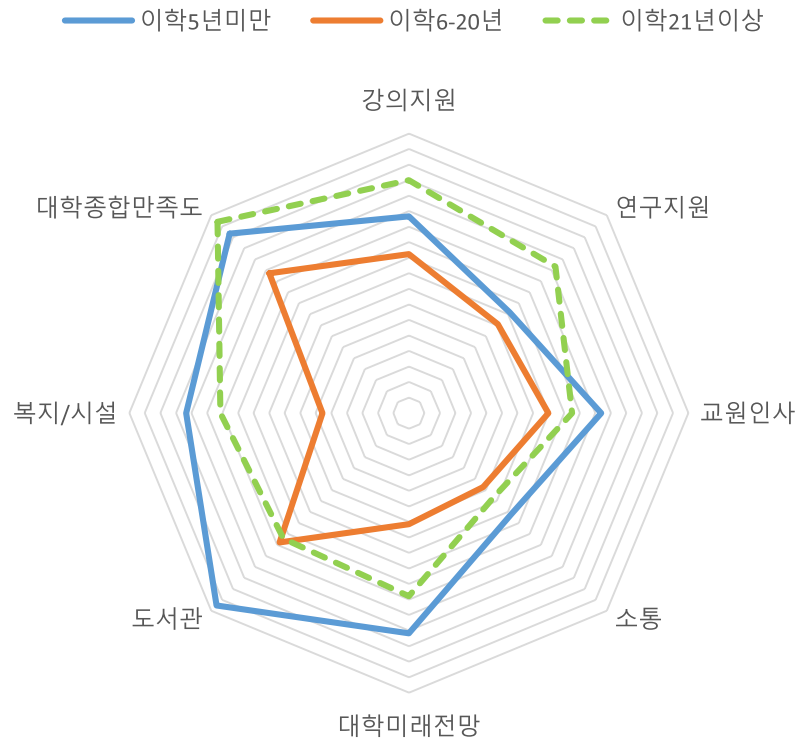
연령별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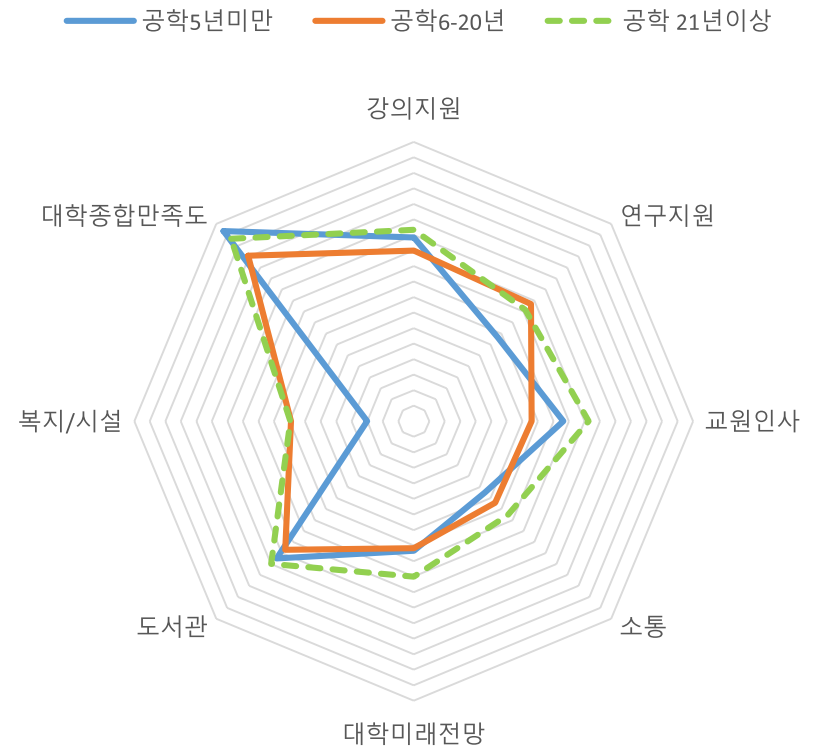


분야별/근속연수별 교수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이학분야/근속연수별



공학분야/근속연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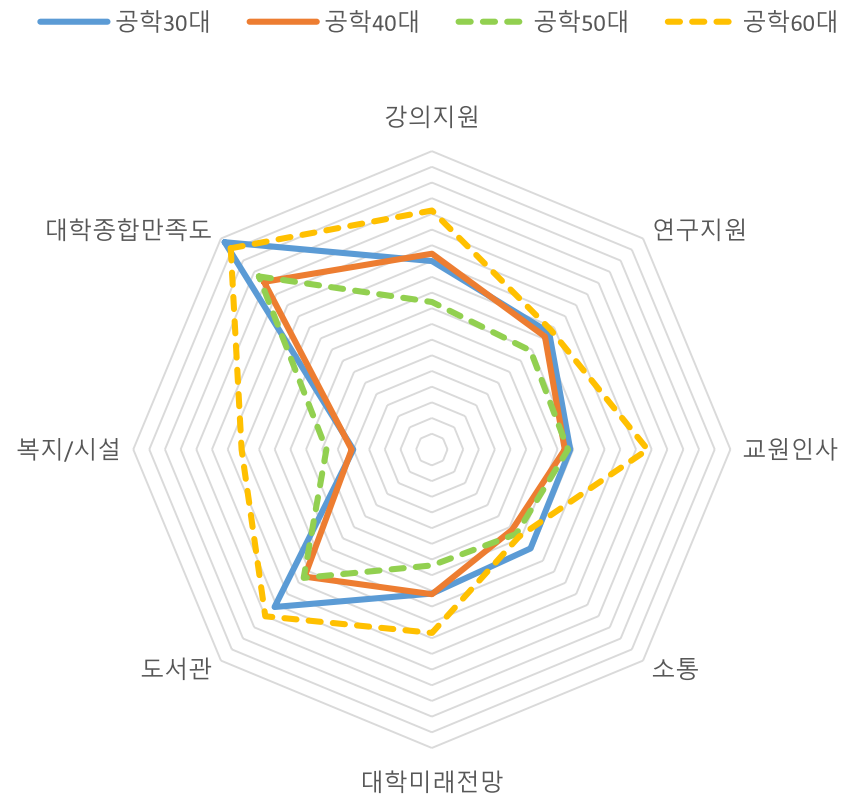


분야별/연령별 교수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이학분야/연령별



공학분야/연령별



교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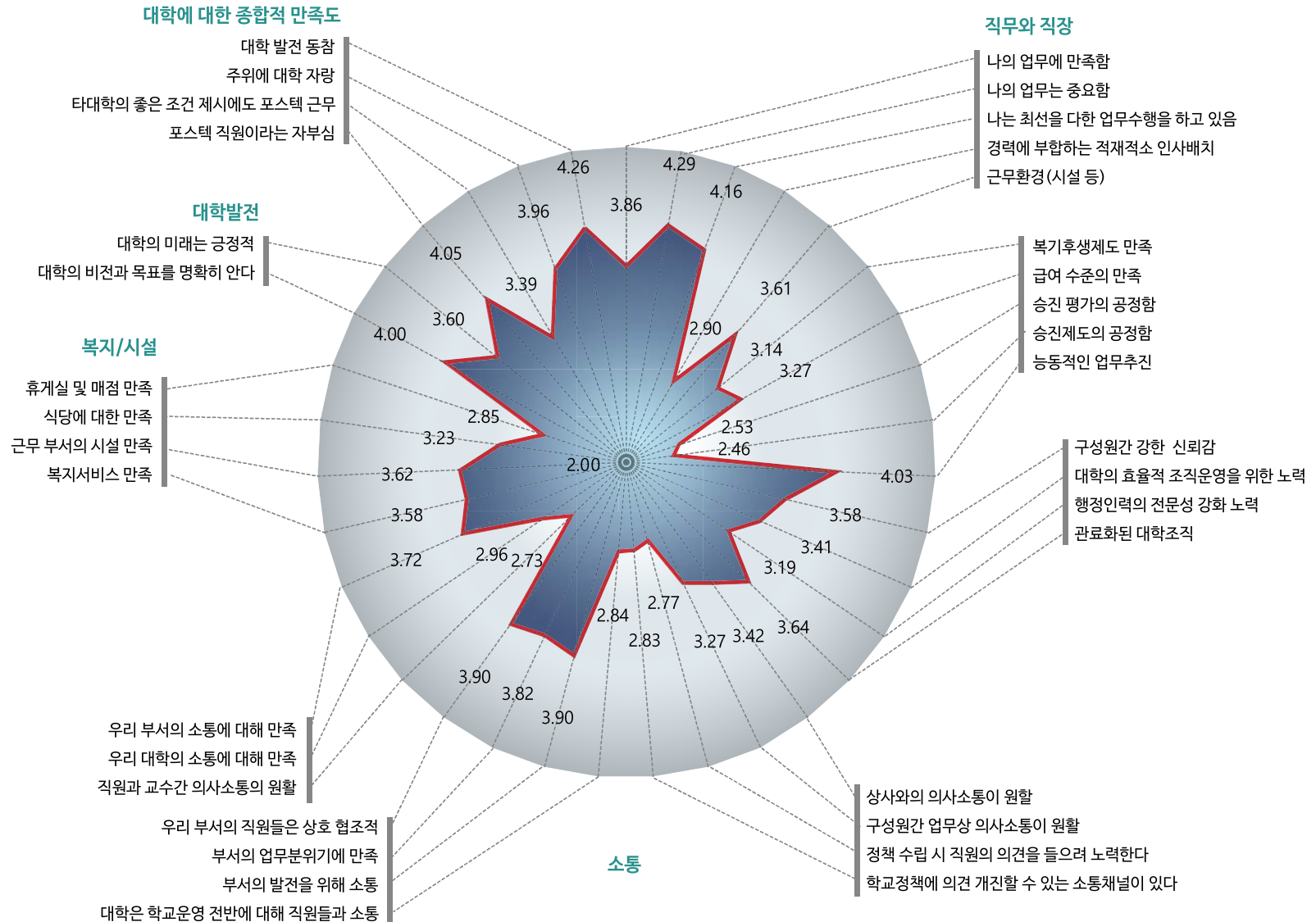
결론

- 공학분야 교수들의 만족도가 이학분야 교수들 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5년 미만 근무한 공학분야 교수들의 복지/시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학분야에서는 6-20년 사이의 근속연수를 가진 교수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30대와 60대 이상 교수들의 만족도가 높고 4-50대 교수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이학분야에서 30대 교수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음.
- 이학분야 40대 교수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특히 강의지원, 대학미래전망, 대학종합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학분야에서는 60대 교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다른 연령대의 교수들의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문/특수대학원 교수들의 만족도가 강의지원과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인문사회분야 교수들의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 교수들의 대학 내 소통 만족도가 학과 내 소통 만족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언

- 공학분야 교수 가운데 근속연수 5년 미만 교수들의 복지/시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학분야에서 근속연수 6-20년 사이의 교수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공학분야에서는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교수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비슷한데 이학분야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교수들의 만족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학분야 40대 교수들이 대학미래전망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전문/특수대학원 교수들에 대한 강의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분야 교수들의 낮은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교수들의 대학 내 소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정책과 운영에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수들의 휴게 시설에 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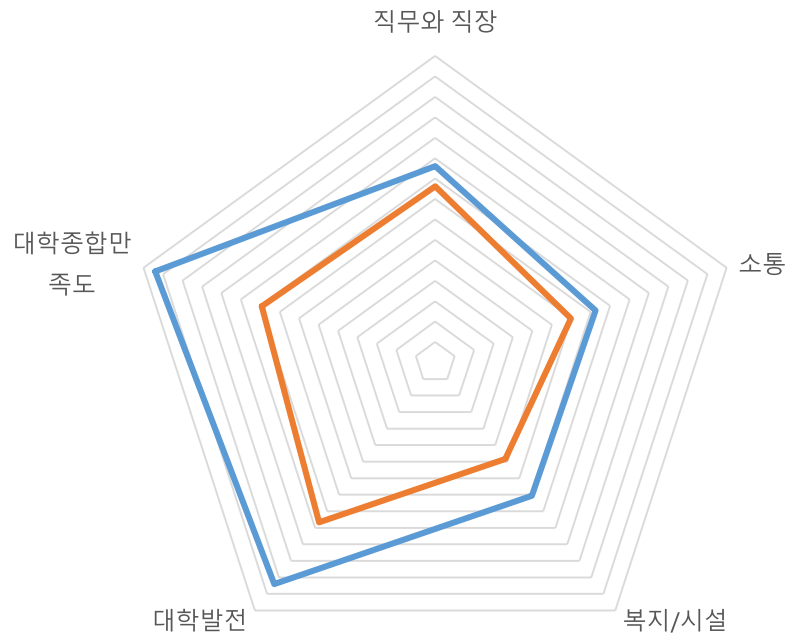
직원(정규직) 인식 및 만족도 요약



성별 및 연령별 직원 인식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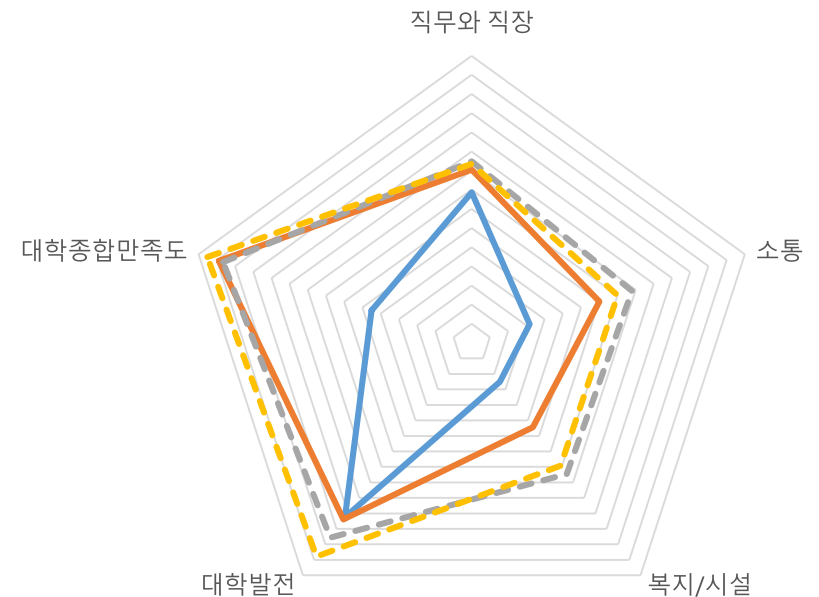
성별 만족도

— 남성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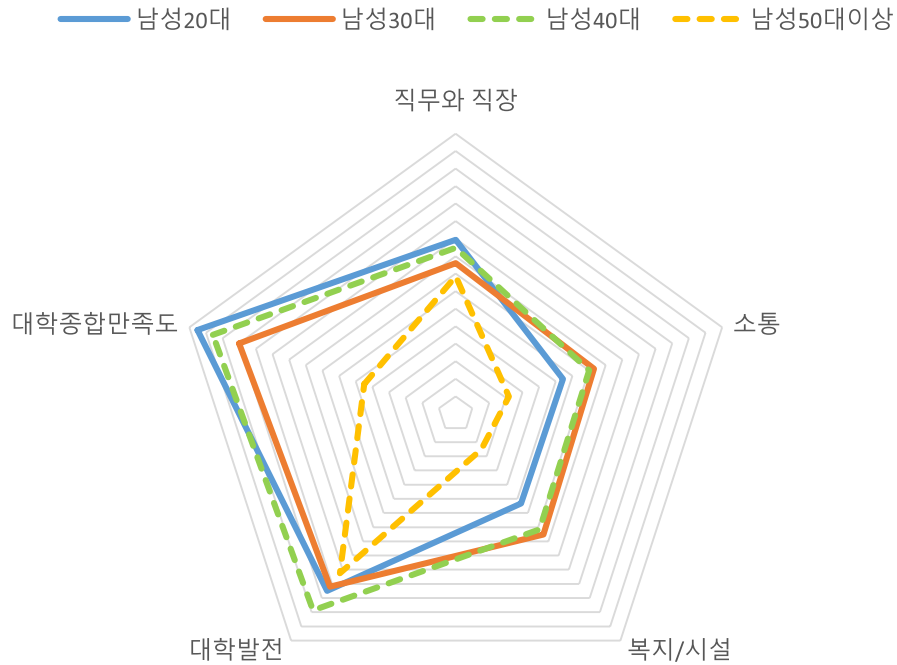
연령별 만족도

— 20대 — 30대 - - 40대 - - - 50대이상



성별/연령별 직원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남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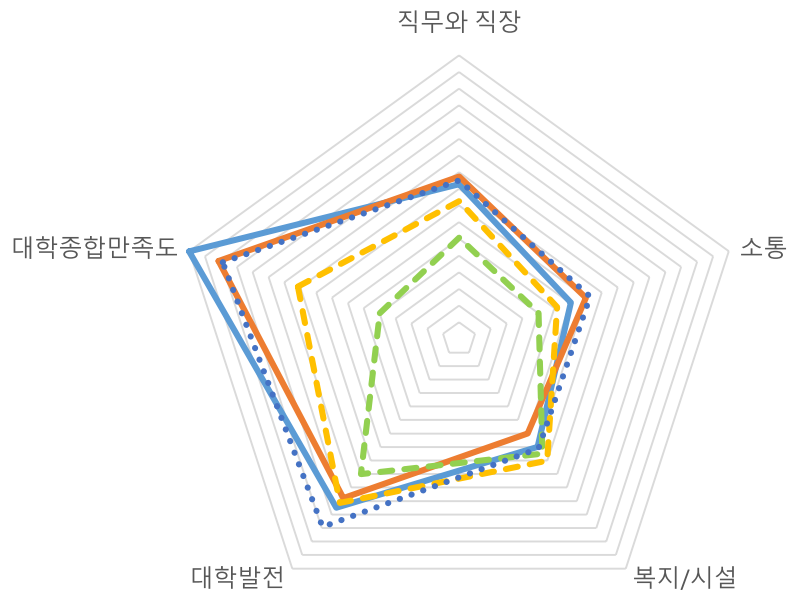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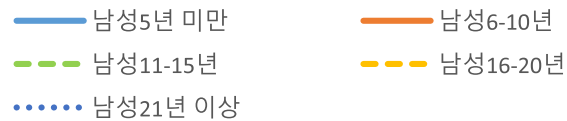


여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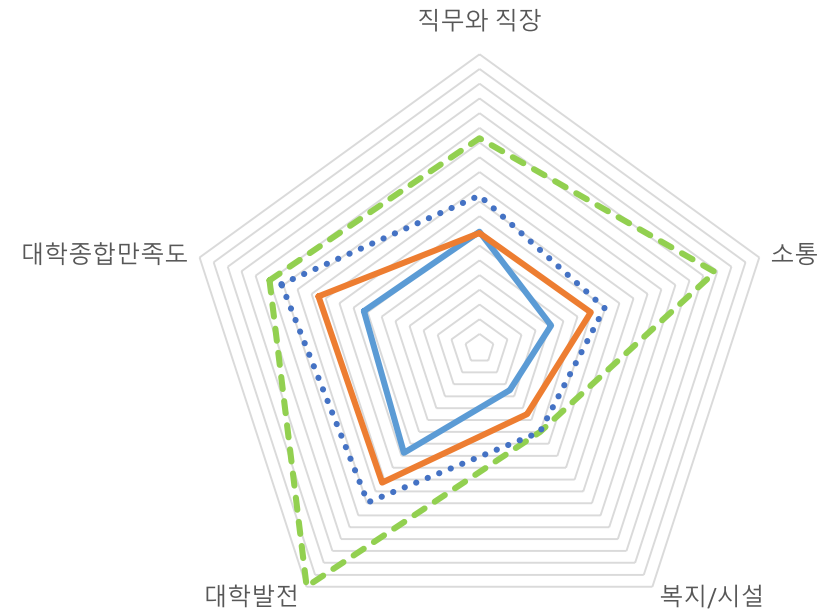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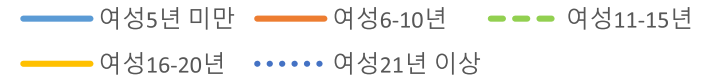


성별/근속연수별 직원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남성/근속연수별



여성/근속연수별



직원(정규직)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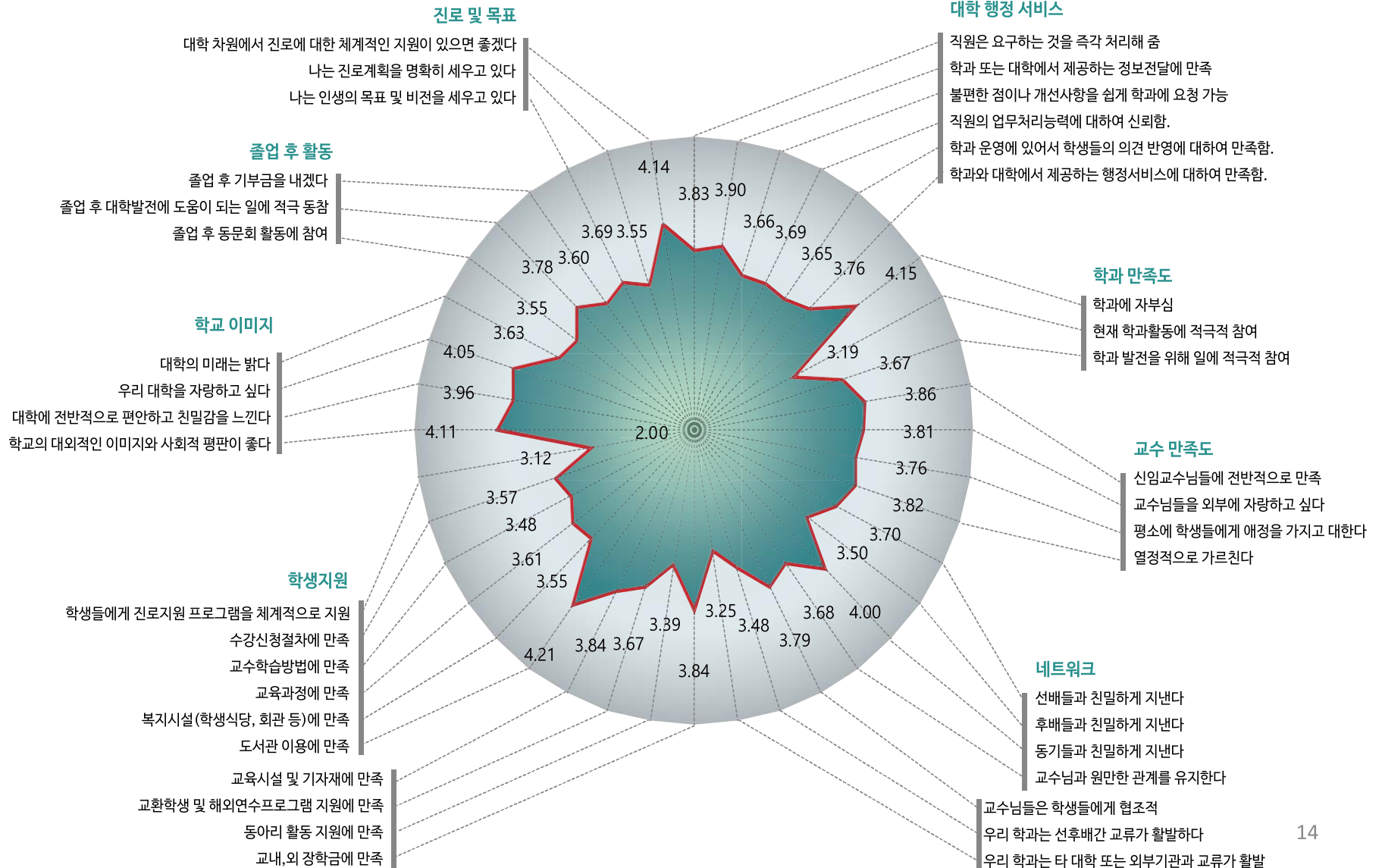
결론

- 남자 직원들은 대학종합만족도와 대학 발전에 관한 의견에서 여성 직원들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음.
- 직원들의 연령별 분석에서는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다른 연령대의 직원들은 비슷했음.
- 남성 직원 가운데는 50대 이상 직원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근속연수별 분석에서는 11-15년 근무한 남성 직원은 남성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근속연수별 분석에서는 다른 항목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대학종합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직원들의 부서 내 의사 소통 만족도에 비해 대학 내 또는 교수들과의 의사 소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승진 평가 제도에 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옴.
- 복지/시설 만족도에서는 휴게실/매점에 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제언

- 여성들이 대학종합만족도와 대학 발전에 대한 의견에서 남성 직원들보다 낮은 이유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직원 가운데 20대와 5년 미만 근무한 여성 직원들의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속감 결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20대이거나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여성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남성들 가운데는 50대 이상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직급별 분석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근속연수별 분석에서 11-15년 근무한 직원들 가운데 남성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표본 크기가 적더라도 (4명)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 직원들의 대학 내 또는 교수들과의 의사소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직원들의 승진체계에 관한 불만 해소 방안이 필요함.
- 휴게실/매점에 관한 불만이 높은 이유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요약



학위과정별 및 계열별 학생 인식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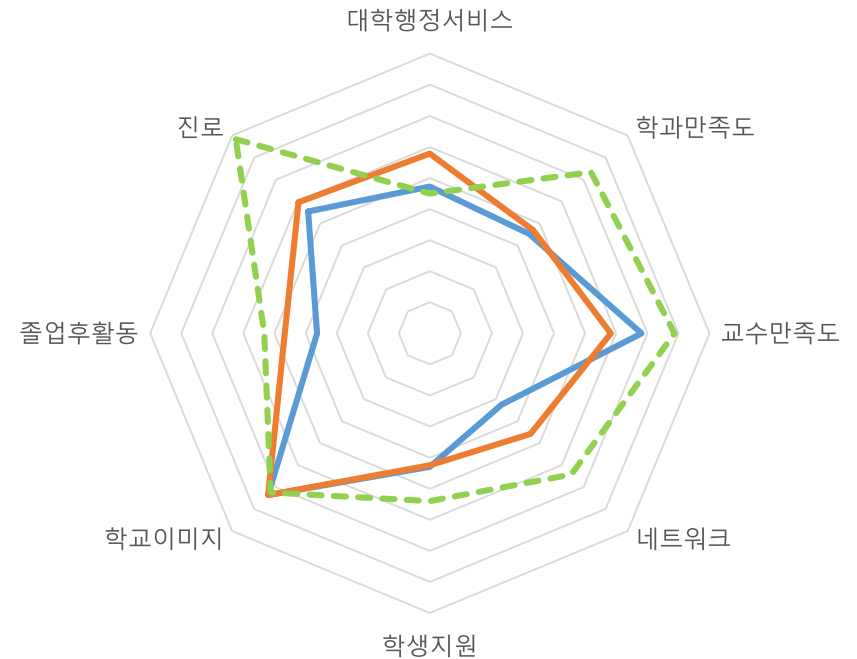
학위과정별

학부 대학원생



계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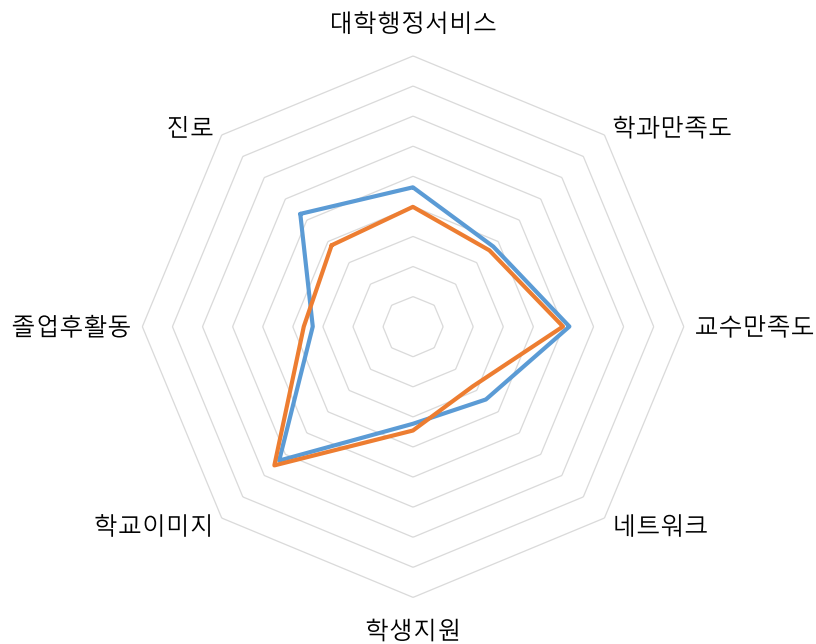
이학 공학 전문/특수대학원



성별 및 학년별 학생 인식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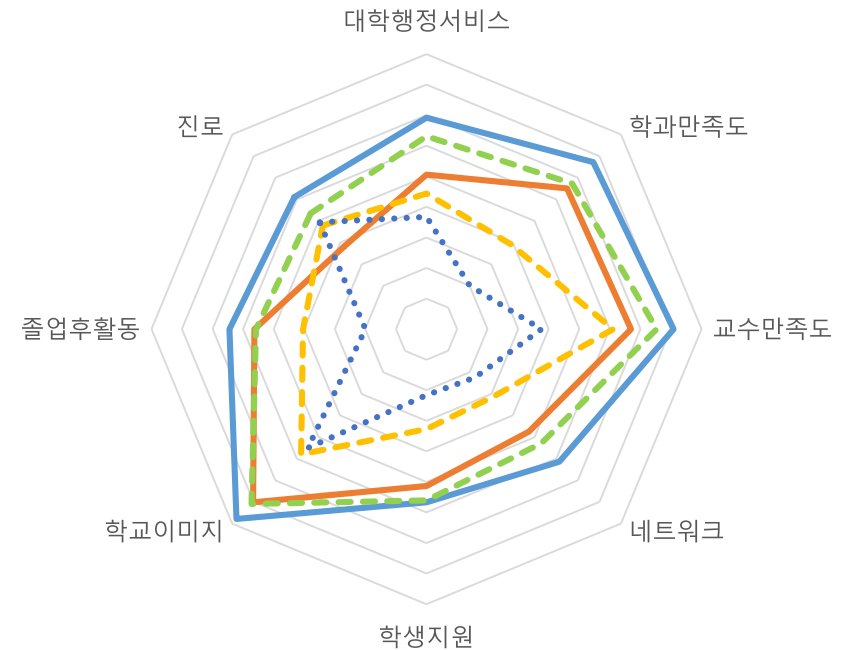
성별

— 남성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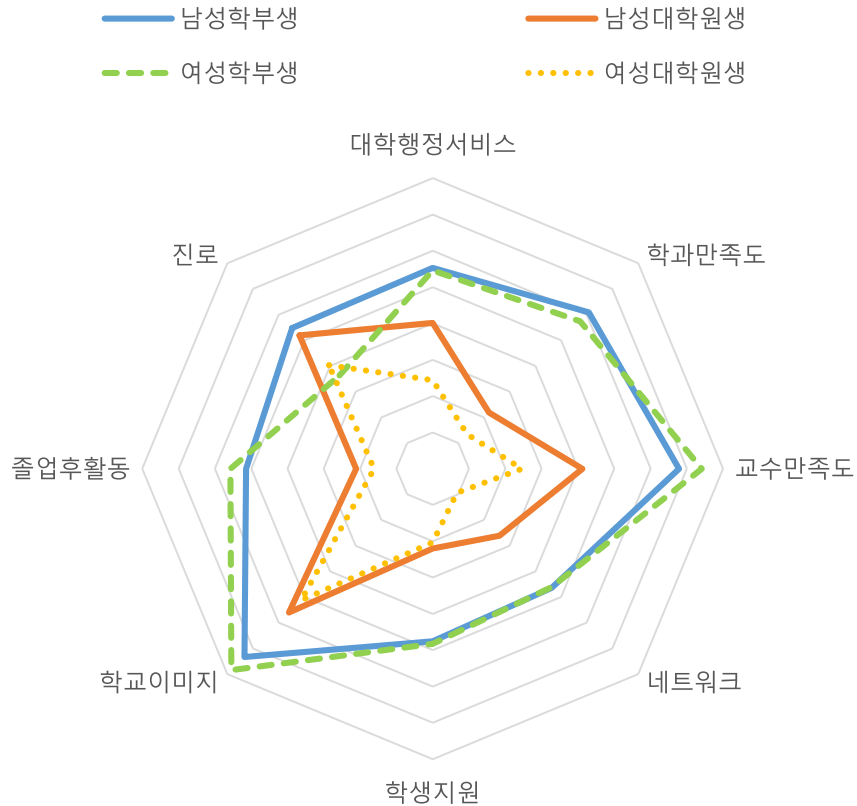
학년별

— 1학년 — 2학년 - - 3학년 - - 4학년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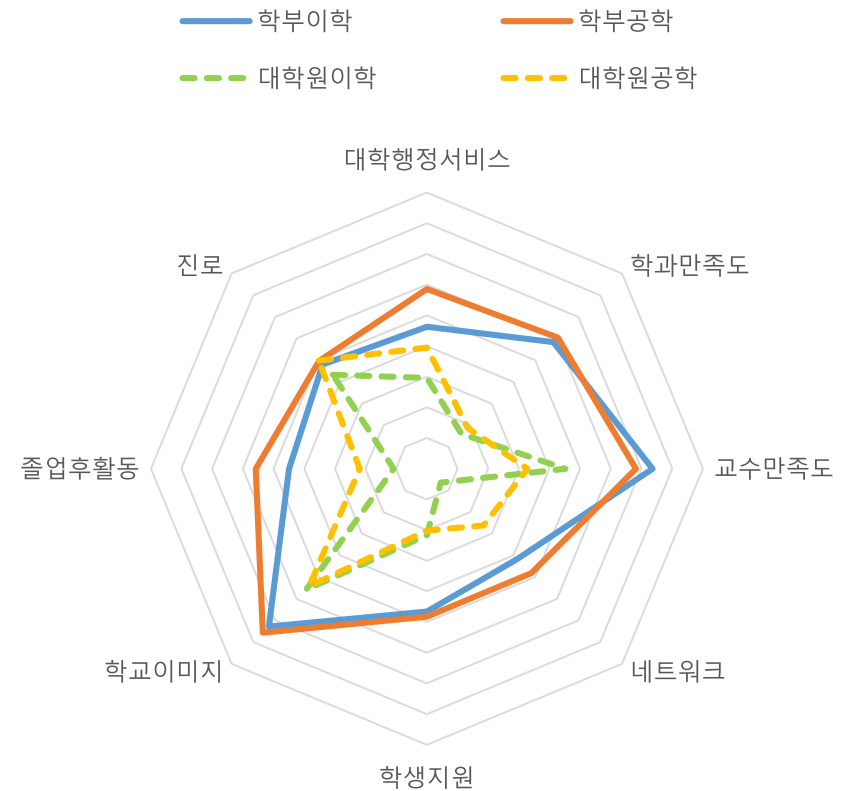


성별/과정별/계열별 학생 인식 및 만족도 교차분석

성별/학위과정별



학위과정별/계열별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론 및 제언

결론

- 학생들의 교수만족도와 학교이미지 만족도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옴.
- 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학부생들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졸업 후 학교 관련 활동에서 학부생들은 높은 참여 의지를 보인 반면 대학원생들은 낮은 참여 의지를 보임.
- 학생들의 네트워크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고 외부 기관이나 타학교 학생과의 교류 만족도도 낮음.
- 성별 분석에서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진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옴.
- 성별/학위과정별 분석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차이가 남녀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분석에서 전문/특수 대학원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음.
- 학년별 분석에서는 1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4학년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는 대학원생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학년별 분석에서 2학년 학생들의 만족도가 3학년 학생들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고 진로지원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언

- 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학부생들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연구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대학원 학생들의 소속감 부족은 졸업 후 포스텍 구성원으로서 연구 네트워크나 동문기업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학부 학생들이 학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들의 대외 교류 기회를 넓히고 대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여학생을 위한 특별한 진로 상담 기관이나 진로 설계 및 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함.

포스텍 교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설문 결과(종합)
- 설문 결과
-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조사 개요

● 배경

- 포스텍 개교 30주년을 맞아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조사를 통해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미흡한 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파악하여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설문응답	설문방법
포스텍 전임교수	전임교원 115명 응답 (총 전임교원 수 277명)	Off-Line(서면조사) On-Line 조사 병행
조사기간	조사내용	
2016.6.15 ~ 2016.6.30	강의, 연구, 인사, 소통, 복지 등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강의	연구	교원인사	소통
• 강의 시수, 강의 지원(시설, 조교 등), 강의 평가 적절성	• 시설 및 장비, 인력 지원, 연구비 관리제도, 연구년 제도	• 교원 채용, 급여, 평가제도	• 학교 정책 소통 채널
대학발전	도서관	복지/시설	종합적인 만족도
• 비전과 목표 공유, 대학의 미래에 대한 시각	• 학술자료 및 학술정보 서비스, 도서관 이용 편의	• 복지서비스, 교수아파트, 식당 등 복지시설	• 포스텍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등

설문결과(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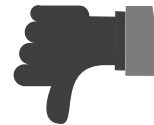
● Key Word

- 포스텍 교수들은 대학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대학이 제공하는 연구 및 교육 지원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학과 발전을 위한 학과 내에서의 교수들 간의 소통은 원활함.
- 대학의 중요 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 부족.
- 대학의 직원과 교수들 간의 소통 부족.



강점

소속감, 자부심
연구 및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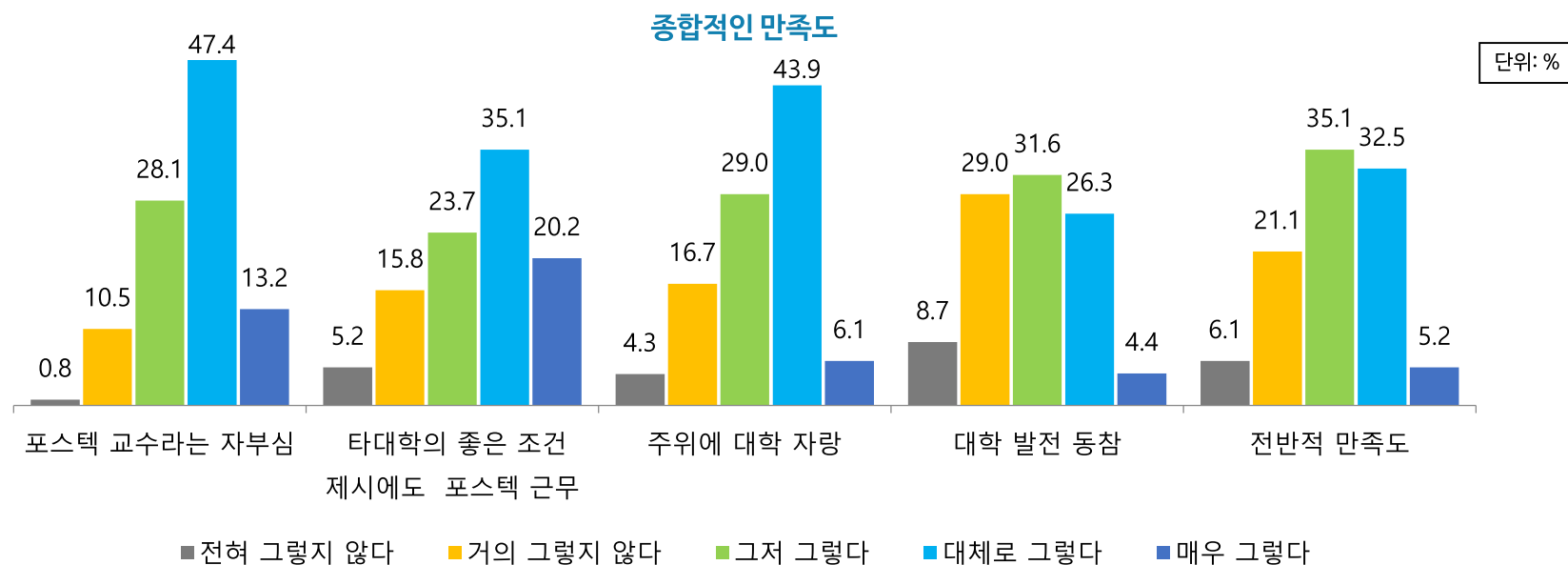
약점

대학 정책에 대한
의견 반영
직원과의 소통

설문결과

●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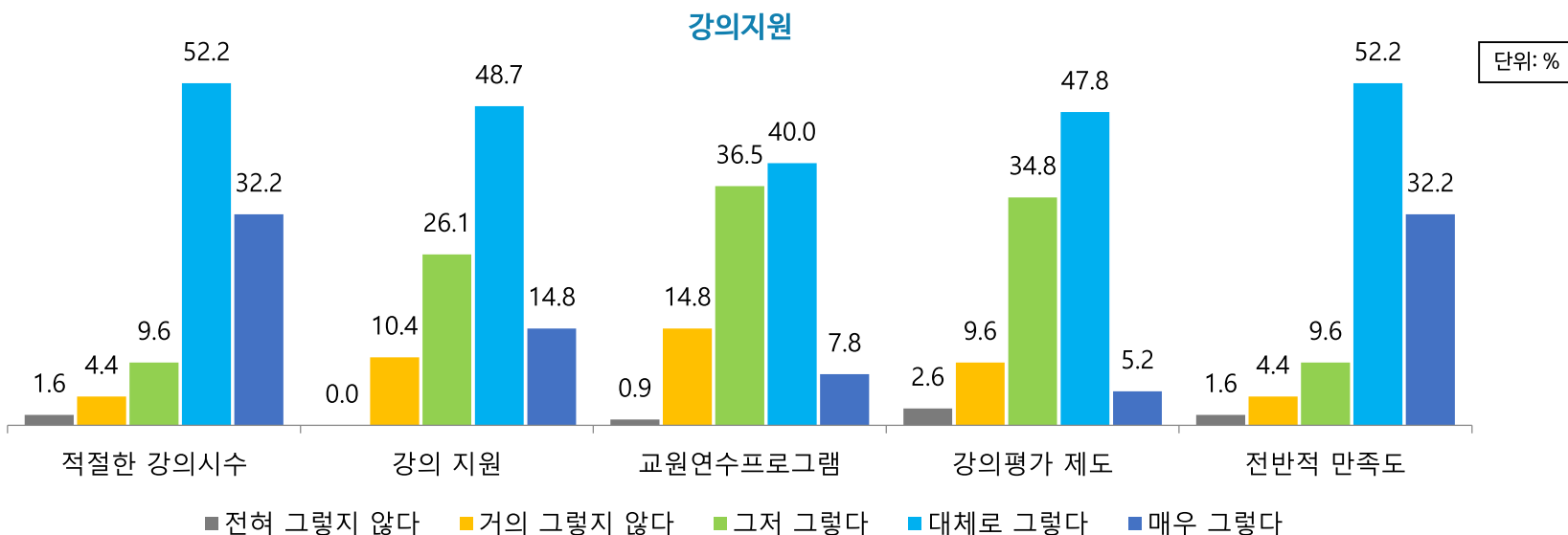
- 포스텍 교수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강하고, 타 대학의 좋은 조건 제시에도 포스텍에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이 많음.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극적인 응답이 많음.



설문결과

강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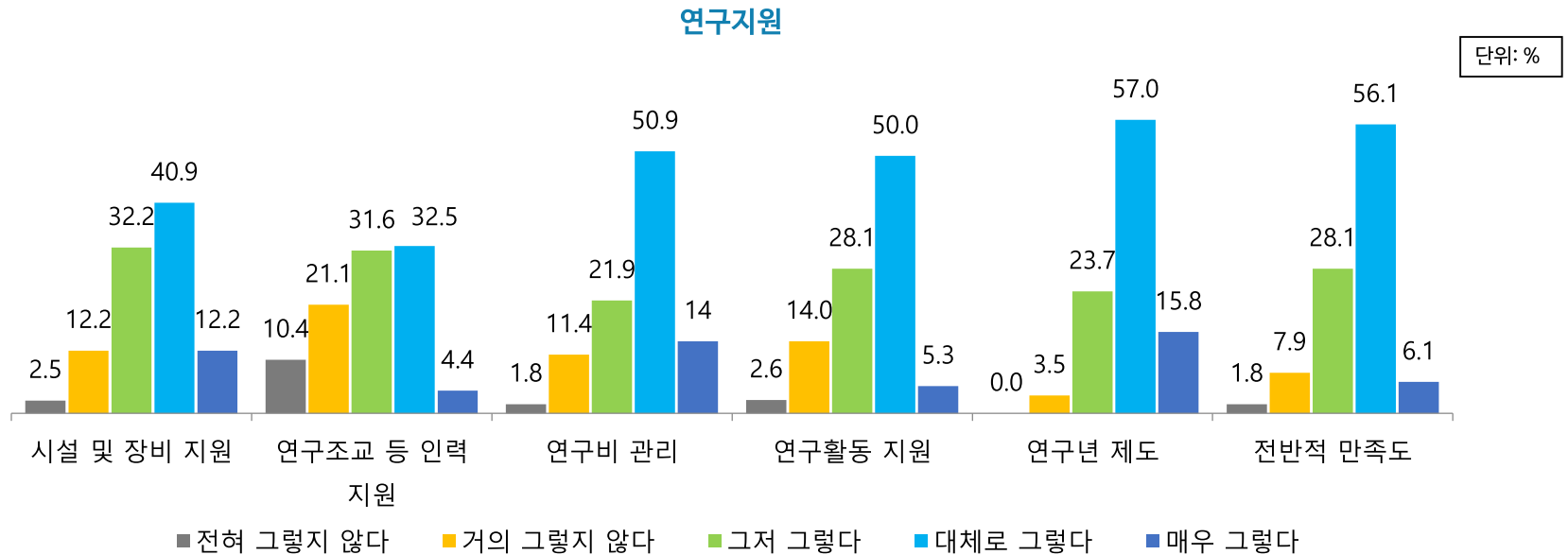
- 대학의 강의 지원 전반에 대해 만족함.
- 교원연수프로그램(교수법, 교수 연수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강의시수, 강의평가제도에 대해서 만족함.



설문결과

● 연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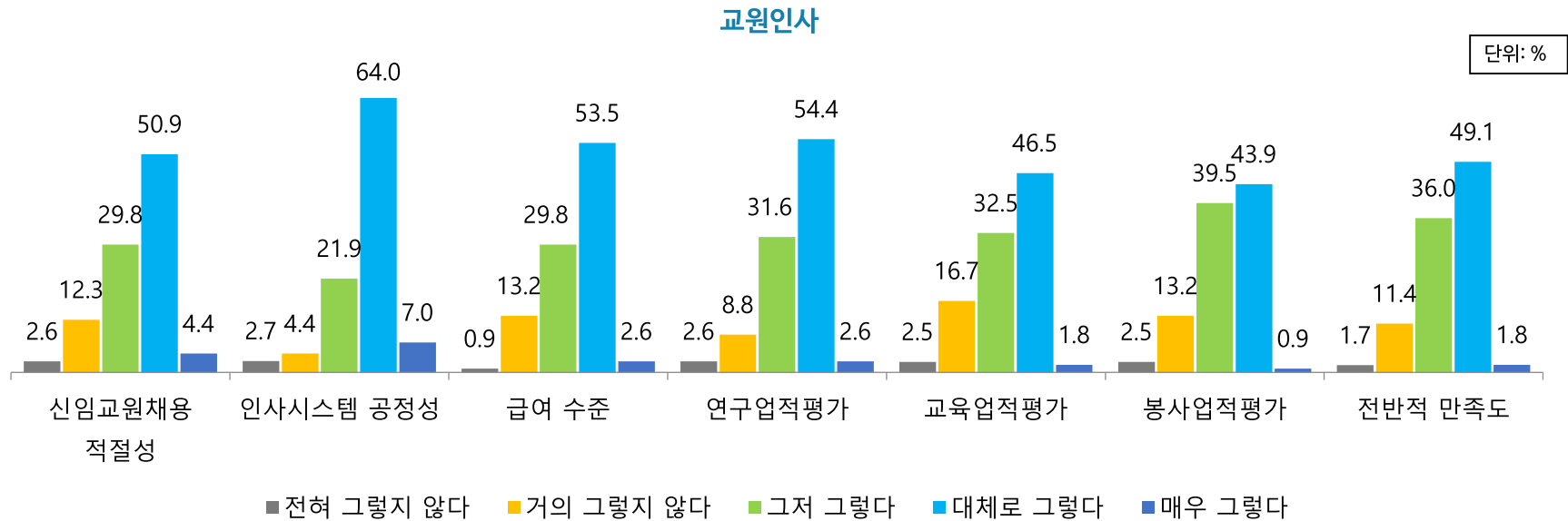
- 연구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 연구비 관리, 연구활동 지원, 연구년제도에 대해 만족함.
- 연구지원 중 연구조교 등 인력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설문결과

● 교원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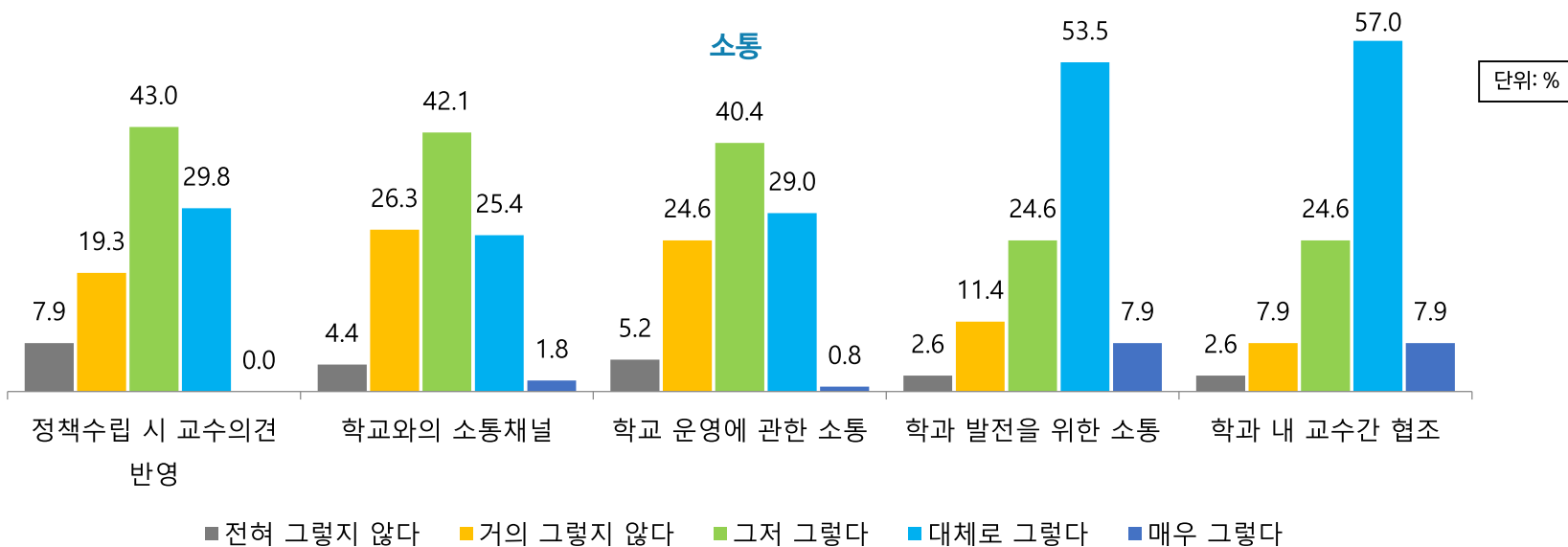
- 교원인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 교원인사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교육 및 봉사업적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설문결과

●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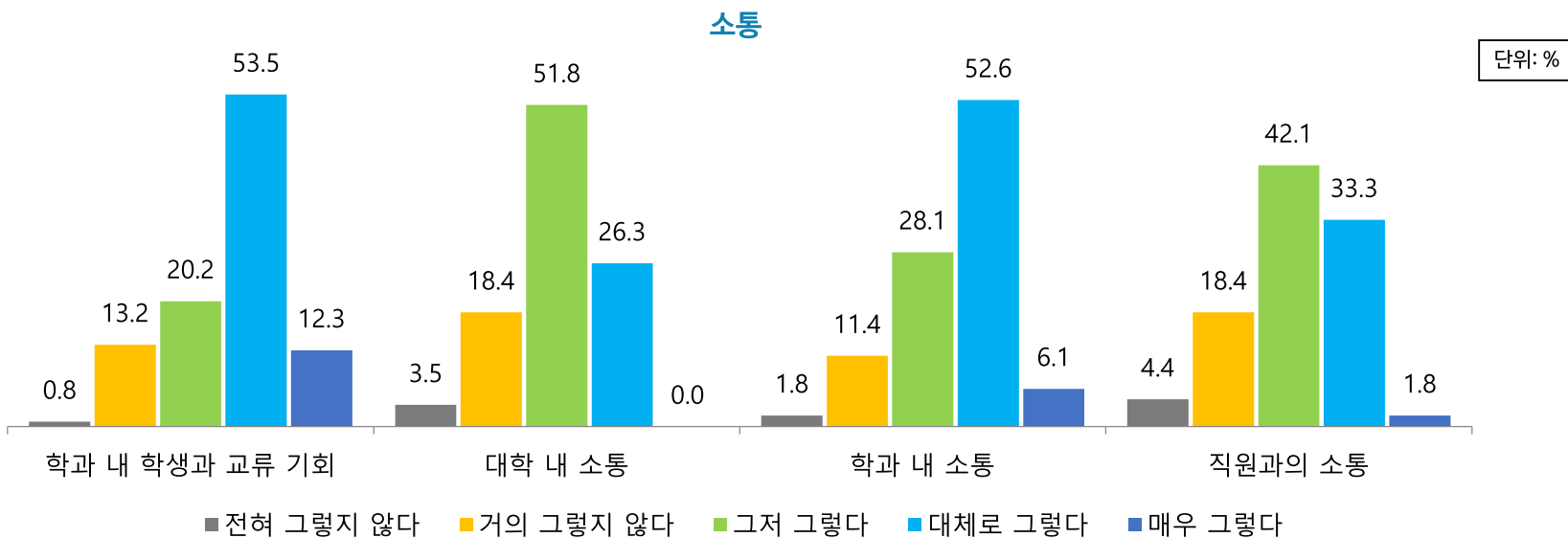
- 학과 발전을 위한 교수들 간의 협조 및 소통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학교 운영 및 대학정책을 위한 소통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교수들의 만족도가 떨어짐.



설문결과

●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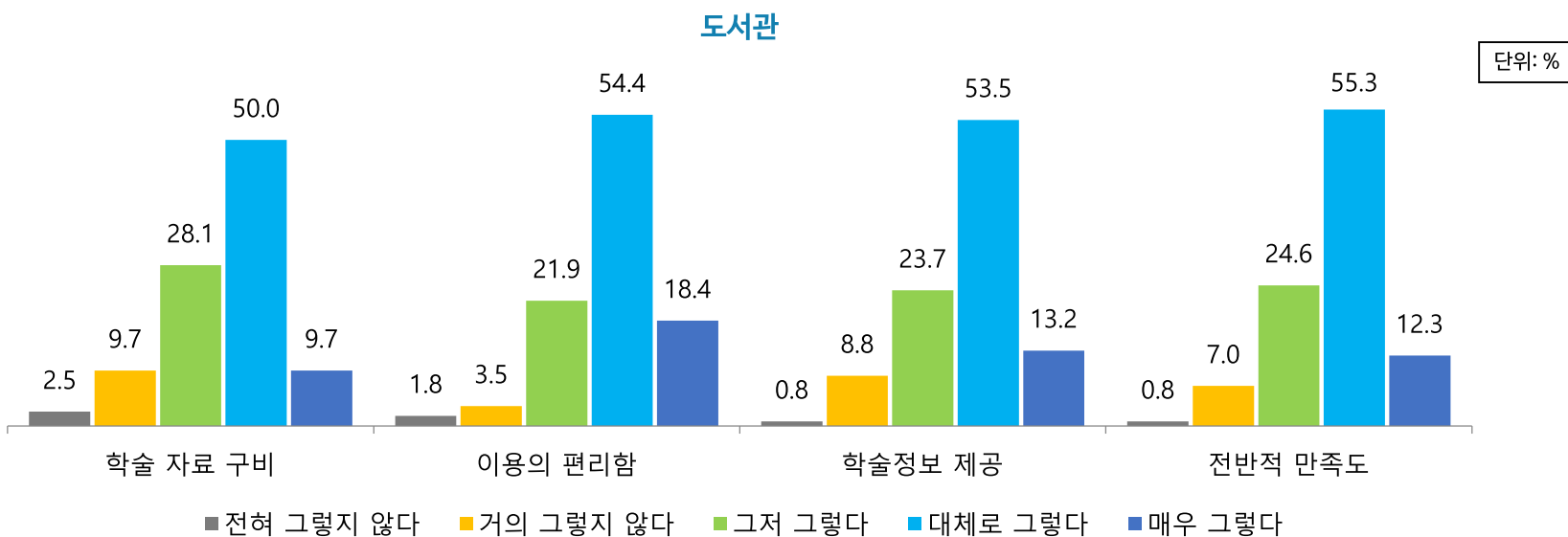
- 학과 내에서의 소통, 학생들과 교수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
- 대학 내 소통, 직원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설문결과

●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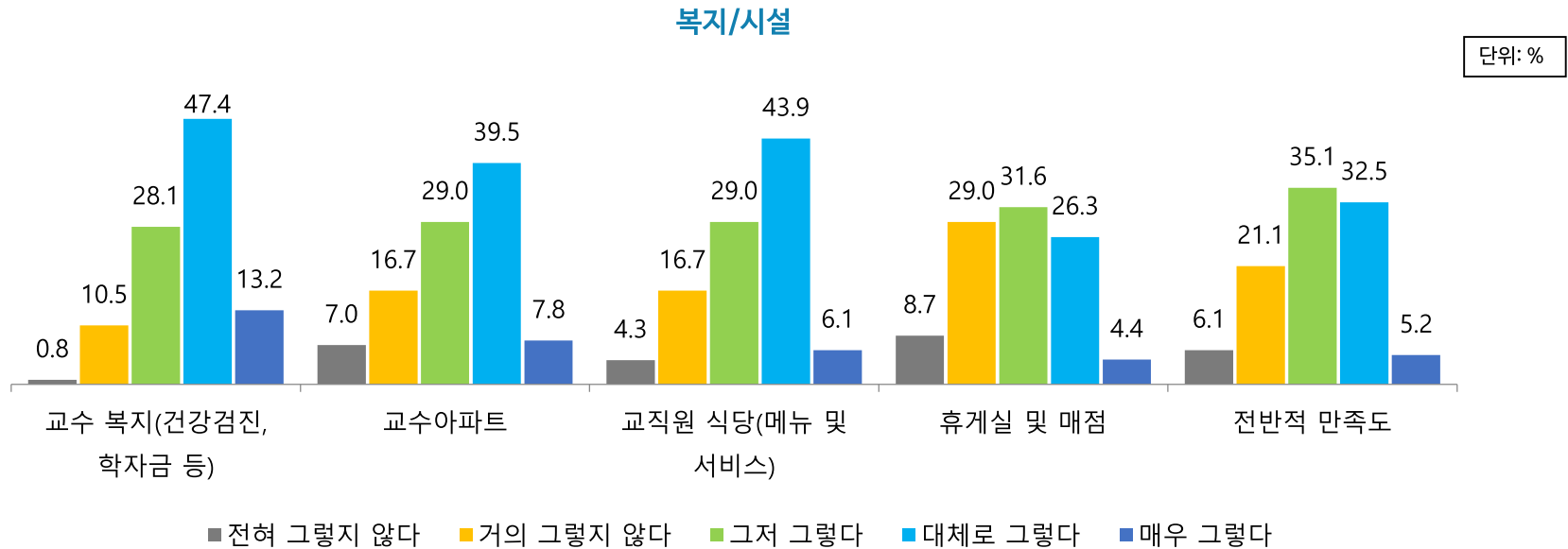
-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음.
- 학술자료 구비, 이용의 편리성, 학술정보 제공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설문결과

●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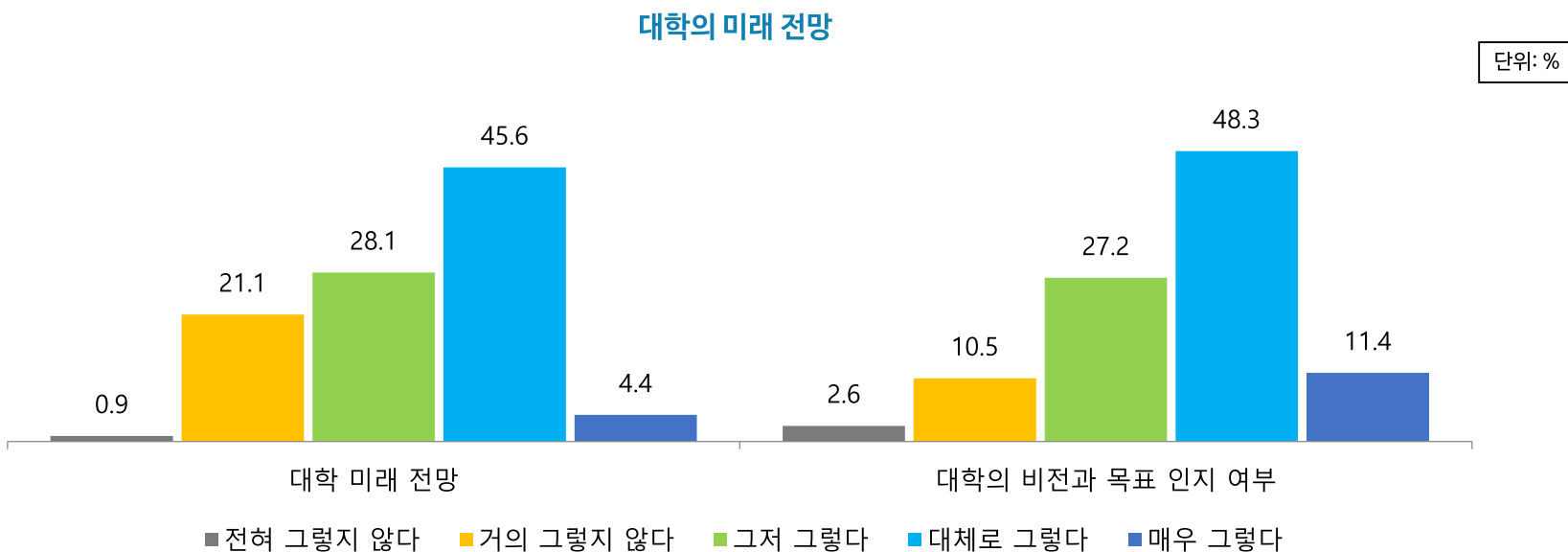
-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과 교직원 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휴게실 및 매점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설문결과

● 대학의 미래 전망

- 응답자 중 과반수가 대학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은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음.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본 의견은 응답자가 작성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음.

● 교원

-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비전임교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함.
예) 강의 허용 현재는 충분한 역량과 자격이 있어도 교수직함이 없으면 강의를 못하게 되어있음.
전체적으로 볼 때 잡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음. 하나하나의 의도는 좋으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전체적인 총괄과 조절이 필요할 듯 함.
- 우수한 교수들과 학생 유치, 우수한 교수 보유 유지,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개교 초기에 했던 파격적인 대우를 교수와 학생들에게 해야 한다.
- 우수한 교원 확보, 재정 확충.
- 1. 우수 교원 확충 및 지원 대책 확립. 특히 젊은 교수들의 부임 초기 연구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incubating 대책 필요.
2. 분석시설 및 장비의 중앙관리화를 통해 현재 사유장비들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고 사용 효율 극대화 필요. 특히 젊은 교수들 부임초기 연구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 3. 교수와 학생들간 소통시스템을 극대화하여 학부학생들의 소속감과 학업 및 연구 의욕 고양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신입교수 충원, 우수 학생 유치, 교원 복지, 명예퇴직제도 실시, 퇴직 교수 재활용.
- 우수 교원/학생 충원 전략, 우수연구성과 내부 홍보를 통한 구성원 자긍심 고취.
- 1. 미래지향적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신진 인력 충원. 2. 학과의 전통적 분야만을 지키는 소극적 자세 탈피.
3. 재단 기금 확보. 4. 유학생들을 유인할 새로운 분야 홍보.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학생

- 우수학생/우수교수 유치 및 보유 자존감 회복.
- 대학의 궁극적 발전 및 평가는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임. 대학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학내 기구를 만들어 어떻게 신입생 모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임.
- 1. 포스텍 학부 교육에 새로운 안을 제안합니다. 학부졸업생들이 더 넓은 전공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 졸업 요건을 현재보다 2배 많은 수의 과목을 듣게 하고 각 과목의 교육 양을 1/2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교수 채용 시 산업체 근무 경력이 반드시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5년 혹은 10년 산업체 경력.

● 리더십

- 현명한 리더 Fund Raising.
- 학교의 정책이 어느 분이 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너무 바뀐다. 교육, 연구, 홍보 등의 중요 정책이 일관성을 갖출 대책(예, 학교 주요 위원회 위원 임기의 장기화, 위원 교체를 1/3씩 하여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 vision을 share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목표 설정. 2. 변화하는 사회에 leadership을 발휘 3. world class에 걸맞은 국제화/open architecture.
- 장기적 발전계획, 재정확보.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연구

-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술 개발/ 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 기술 개발.
- 집단 연구(교내) 연구비 지원. 좋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기초 데이터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
- 1.공학과 이학의 목표 정립 후 정책의 공조 및 특화 추구 2.에너지 소모가 많고 구성원 간의 조화를 깨는 연봉제에 대한 재고(호봉제 + 단기성과 인센티브 제도로 변화 필요) 3. 최근 늘어나는 정년 후 교수 잔존 추세의 시정 (정년 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정신으로 자리잡아야 함).
- 1. 공용 장비 테크니션의 고급 인력화(Ph.D 이상급 10년 이상의 관련장비 및 기술 경력있는 분을 테크니션으로 고용)
2. 보다 공격적인 신입 교원의 임용.
- 1. 연구 평가 시 일률적인 SCI 및 Impact 를 고려한 평가 제도는 수정해야 하고 분야별 평가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교육 시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소수 분반 운영 고집을 자제해서 교육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활동을 자제하고 교수님들의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 소통

-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공유, 의견교환, 대화의 장, 무엇이든지 소통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행정

- 재원확보, 교육혁신.
- 교수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이 필요함.
- 교직원 학생들의 위한 21세기형 복합문화공간 확보.
-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금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1. 재단의 재정지원 대폭 확충 2. 본부와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과의 소통 3. 교원 복지 향상 4. 우수교원 확충 및 retention.

● 기타

- 실질적 국제화가 필요함.
- 구성원의 복지에 대해 전반적인 제고가 있으면 좋겠음. 개교 당시의 기준으로 복지의 기준이 고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
- 구성원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POSTECH 발전에 동참하여야 한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분명 밝은 희망의 빛은 비칠 것이다.
- 과기원 전환.
- 학부의 크기를 확대하는 일. 현재 포스텍은 1인당 지표로는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세계 학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미미함.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절실함. (포스코가 창사 당시 50년 전의 규모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철강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포스텍은 30년 전 개교 당시의 규모인 300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세계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前 총장님의 의견

● 장수영 (前)총장님 의견

1. 지금보다 포스텍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교수들의 과제는 동서고금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강의 잘하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연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과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총장과 보직자들의 일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금보다 포스텍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 직원들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고 봉급 받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직접간접으로 대학발전에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업무를 창의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총장이 어느 기관에 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직원이 편지와 봉투를 바꾸어 넣어서 허사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前 총장님의 의견

3. 지금보다 포스텍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나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대학에 가보았는데 학생들의 과제는 별 것이 아니고 학업을 충실하게 하며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은 자신이 맡은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학위논문이 될 뿐 아니고 연구비를 지급한 기관의 목표달성에도 공헌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대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좋으면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내가 경험한 것은 학기말시험지에 학생들이 강의가 좋았다는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 난징대학 학생이 현수막에다 "지금은 내가 난징대학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훗날에는 난징대학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4. 포스텍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대학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포항공대가 지금까지 잘해 온 것의 첫째 이유는 재단이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대학에 준 것이었고, 둘째는 교수 직원 학생들의 애교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감소했다고 보입니다. 설립이사장은 대학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학사운영에 대하여 전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미국의 저명대학 이사장은 대학에 사무실도 없고 이사들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회의할 때 자신들의 경비로 참석하면서 많은 금액을 대학에 기부합니다. 재단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재정담당 부총장이 바로 재단의 본부장격이며 대학의 CEO는 이사장이 아니고 총장입니다.
- 이것이 미국대학과 한국 사립대학의 큰 차이입니다.

前 총장님의 의견

● 백성기 (前)총장님 의견

1. 지금보다 포스텍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학부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지금보다 포스텍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 직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상명하복식 업무 행태를 극복하고 교수와 학생에 대한 세심한 서비스 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3. 지금보다 포스텍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일생을 통해 꾸준히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 즉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 과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우리 포스텍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대학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포스텍 **직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설문 결과(종합)
- 설문 결과
-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조사 개요

● 배경

- 포스텍 개교 30주년을 맞아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조사를 통해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미흡한 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파악하여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활용.

조사대상	설문응답	설문방법
포스텍 정규직원	정규직원 129명 응답 ('16년 직원 연수 참가자 207명 대상)	Off-Line (서면조사)
조사기간	조사내용	
2016. 6. 30	일과 직장, 소통, 복지,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직무와 직장	소통	복지/시설	대학발전	종합적인 만족도
•업무, 직원인사·배치, 근무 환경, 복리 후생, 승진 평가 공정성	•상사와의 소통, 구성원 간 소통, 부서 업무 분위기	•복지 서비스, 대학 시설, 구내 식당	•대학의 비전과 목표, 대학의 미래	•포스텍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이직 의도

설문결과(종합)

● Key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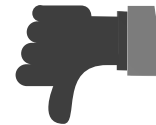
- 포스텍 정규직원들은 직장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음.
- 좋은 조건 제시에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겠다는 응답률이 낮고, 주위에 우리 대학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등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대학 정책과 관련된 소통, 승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



강점

—

자부심, 소속감
직장 만족도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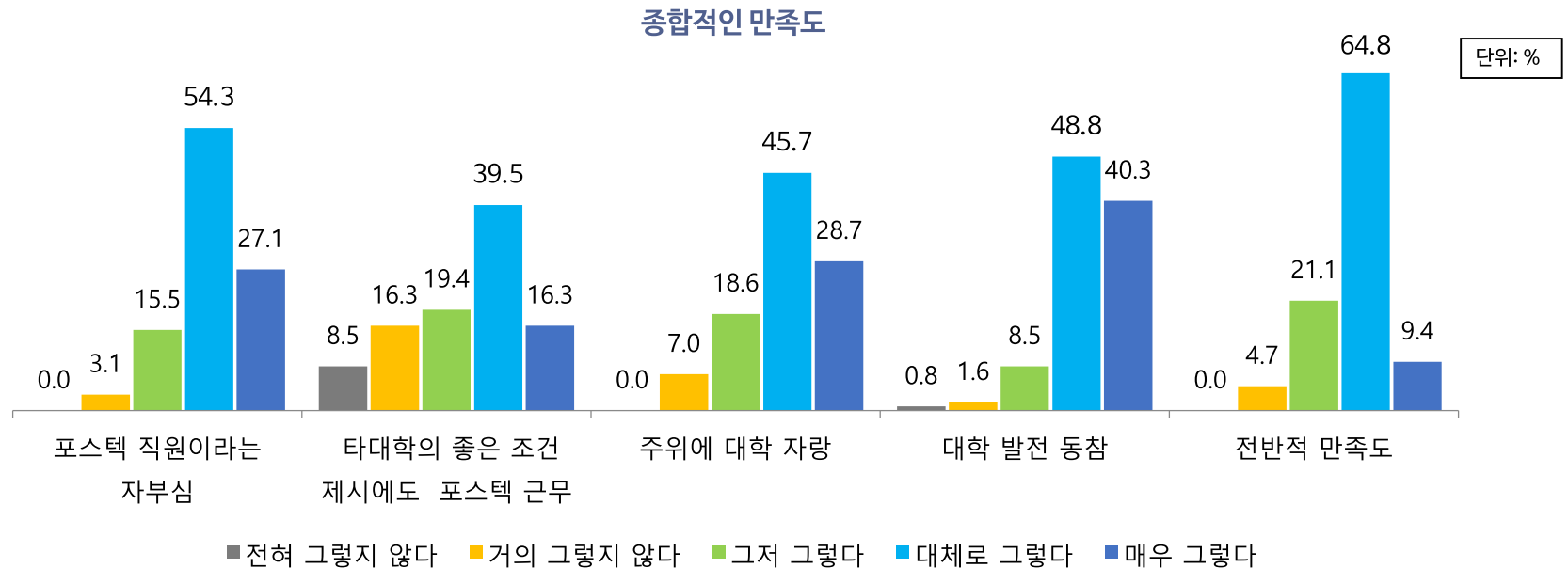
—

대학 정책 관련 소통
승진제도

설문결과

●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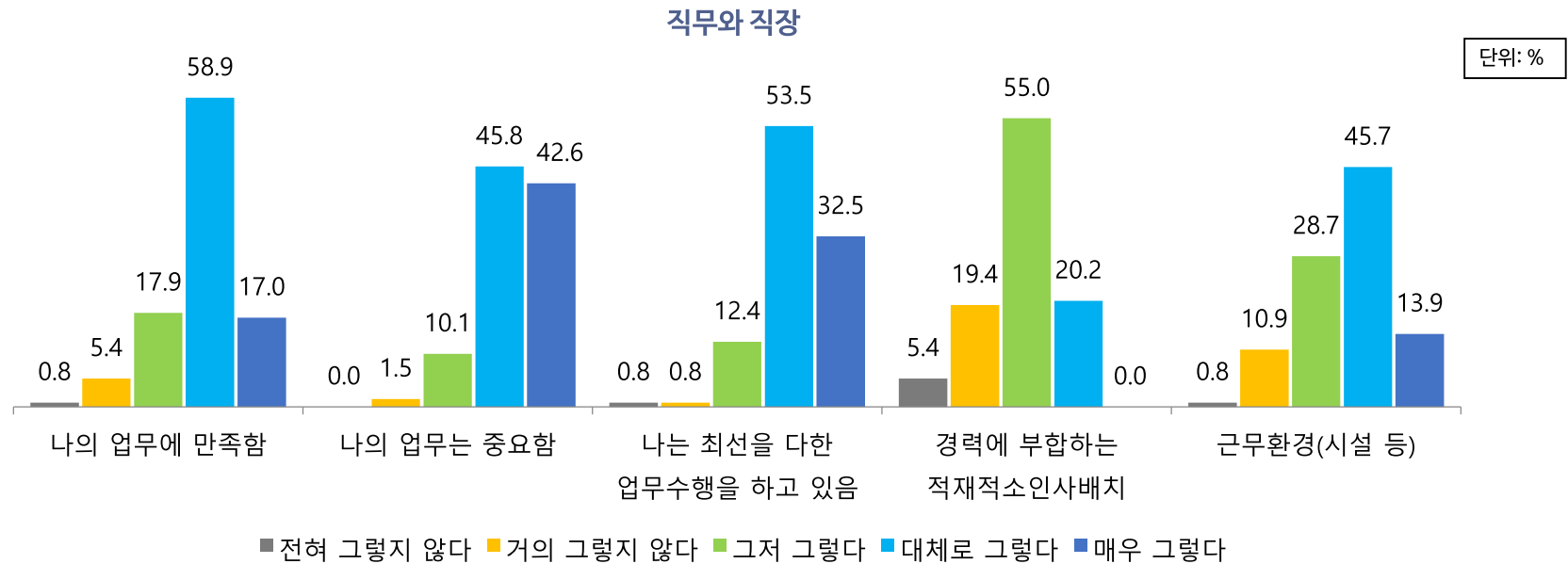
- 포스텍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높음.
- 대학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설문결과

● 직무와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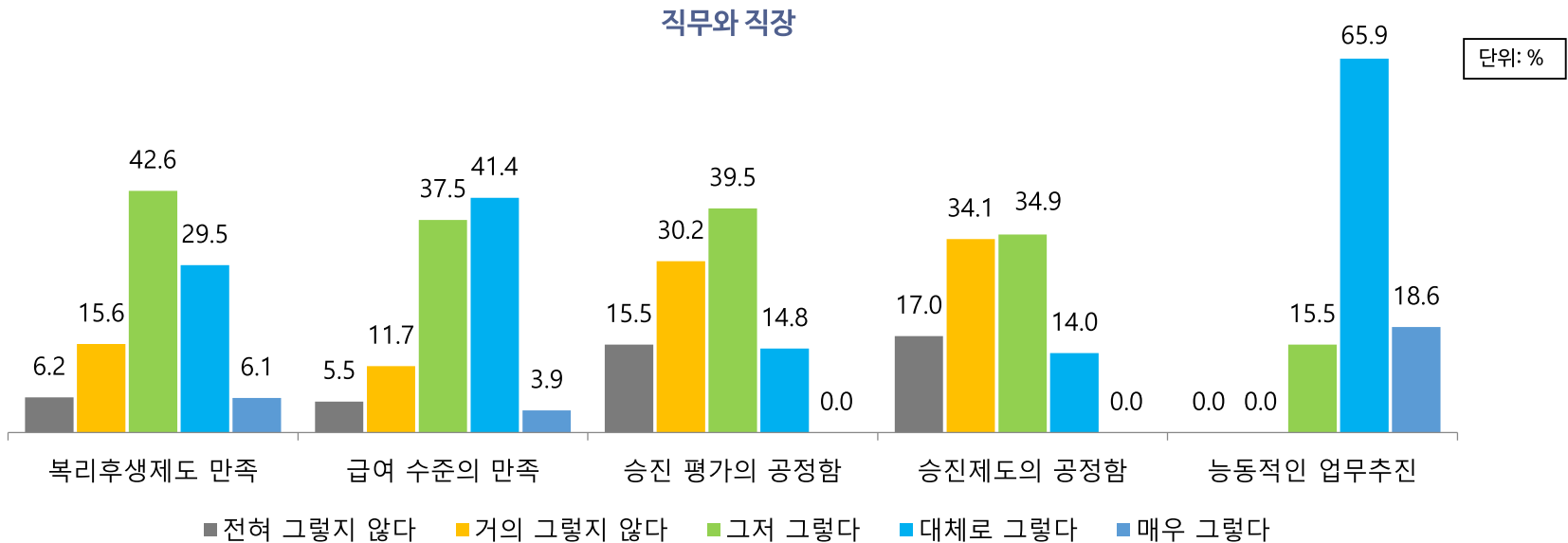
- 본인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성, 업무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는 응답은 높음.
-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직원 인사에 있어서 경력에 부합하는 적재적소 인사배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



설문결과

● 직무와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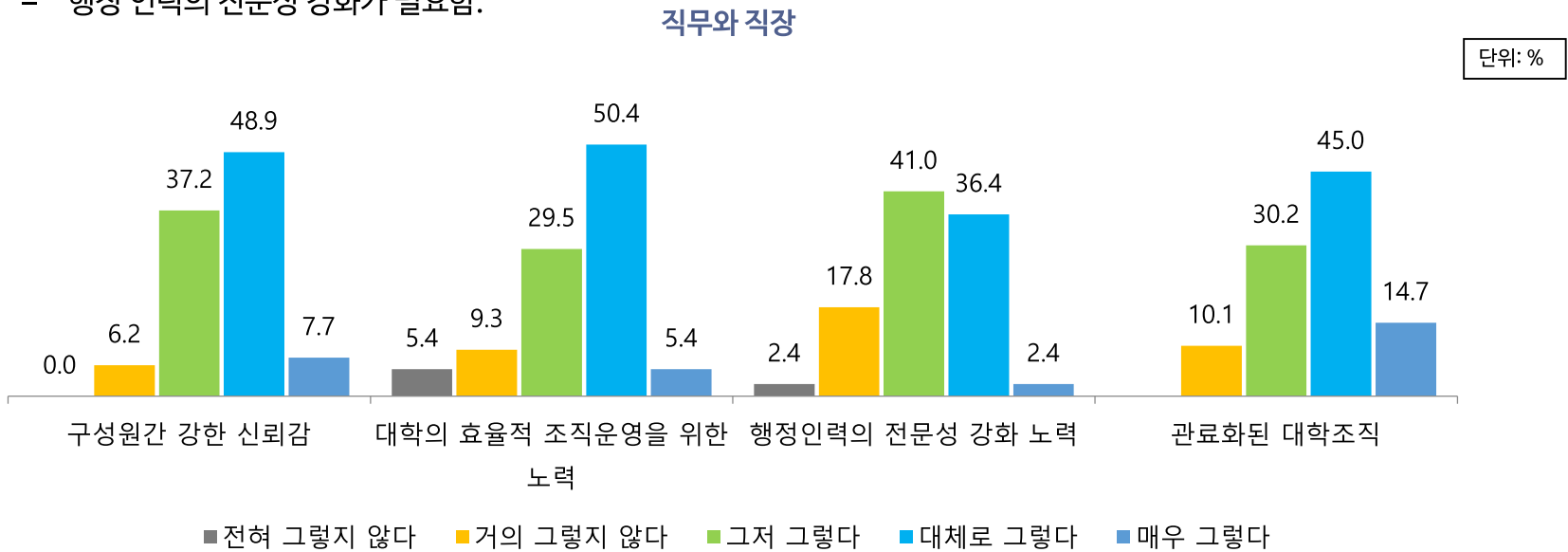
-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음.
-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대학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음.
- 승진 평가 및 승진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설문결과

● 직무와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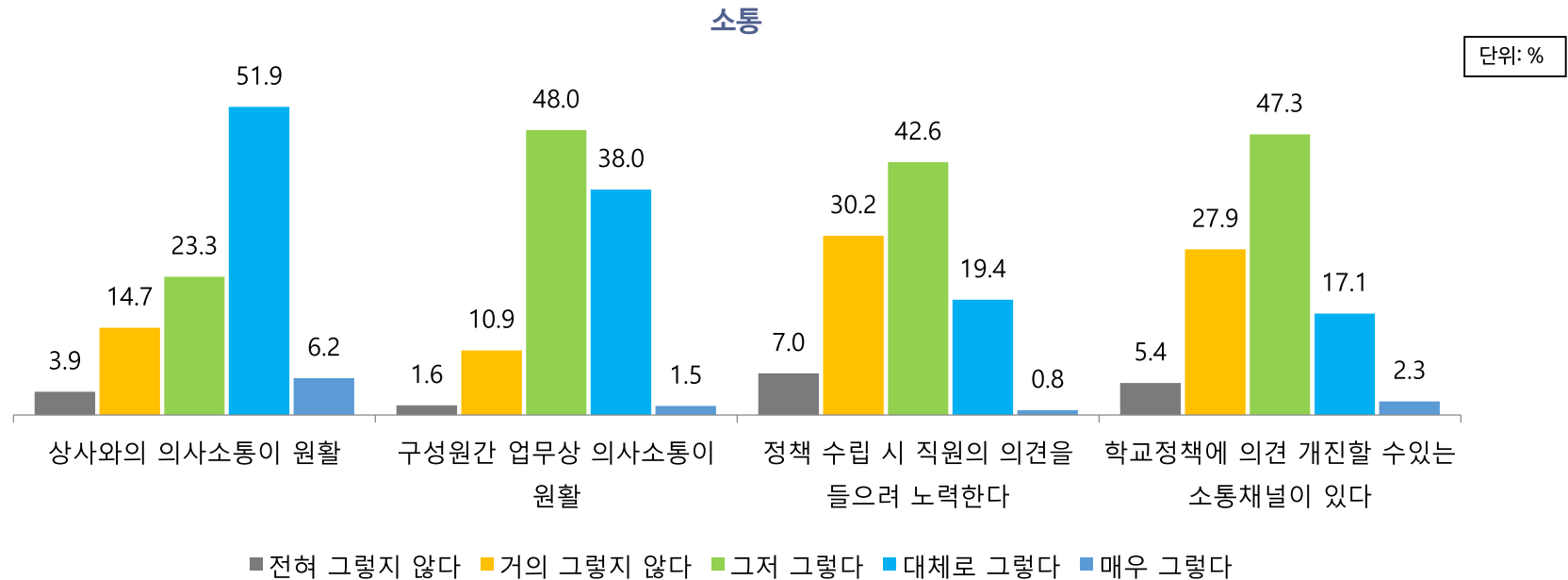
- 직원들 간에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음.
- 대학이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
- 우리 대학이 관료화 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함.
- 행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설문결과

●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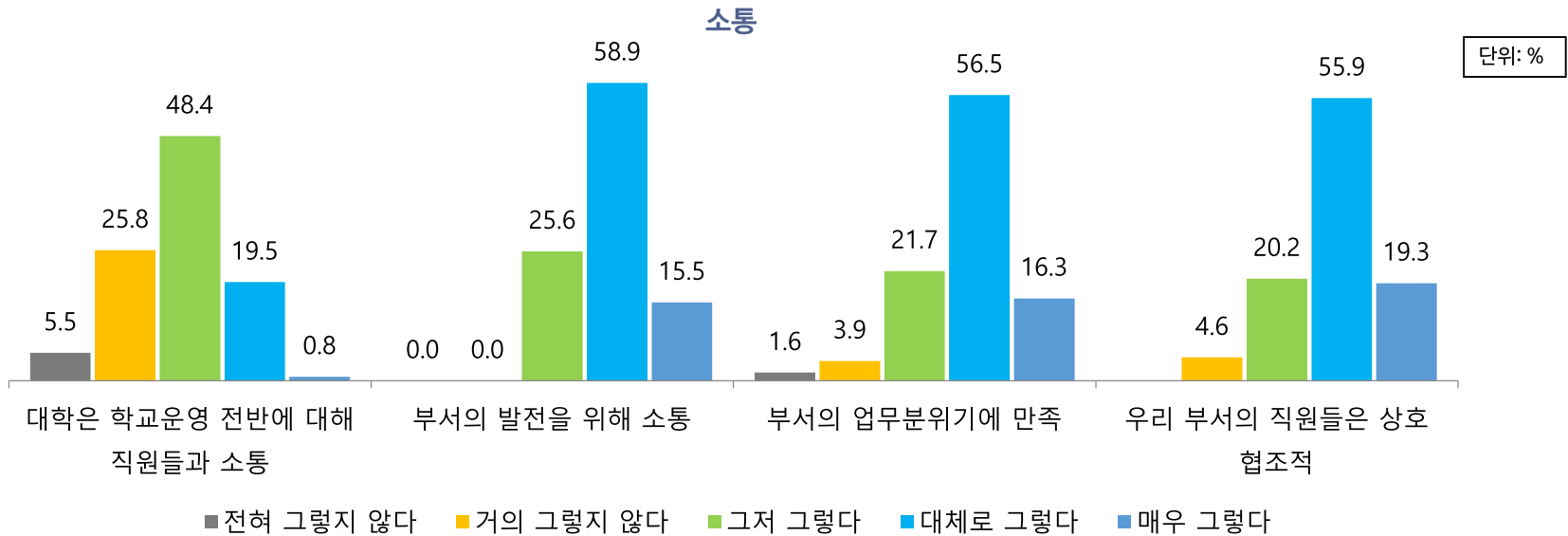
- 상사와의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 구성원간 업무상 의사소통의 원활함은 상대적으로 낮음.
- 대학의 정책 수립 시 직원과의 소통 채널 및 의견 청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설문결과

●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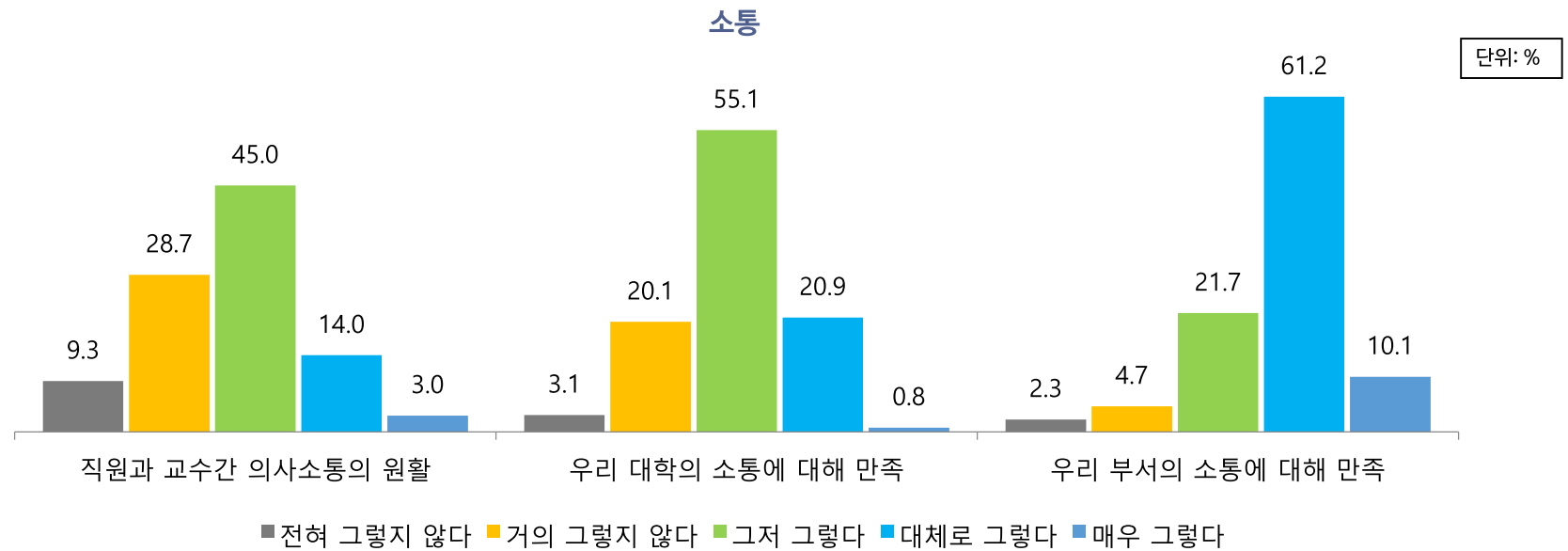
- 부서 내에서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부서의 업무분위기와 직원들의 상호협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대학의 학교운영 전반에 있어서 직원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설문결과

●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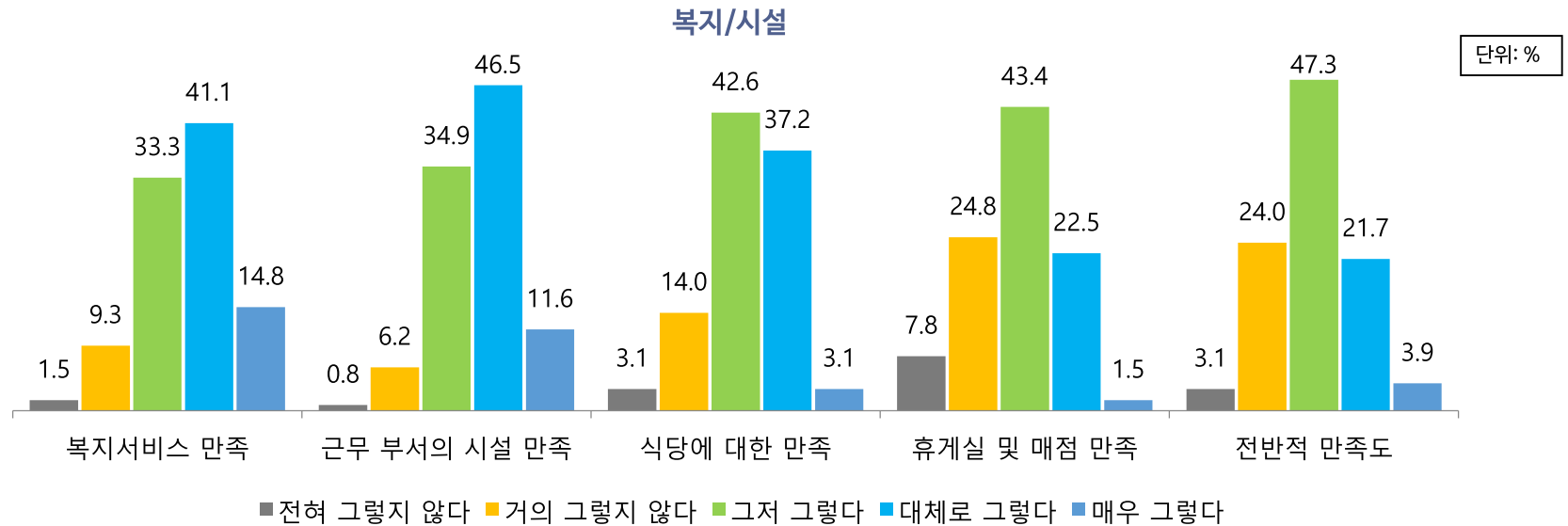
- 교수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설문결과

●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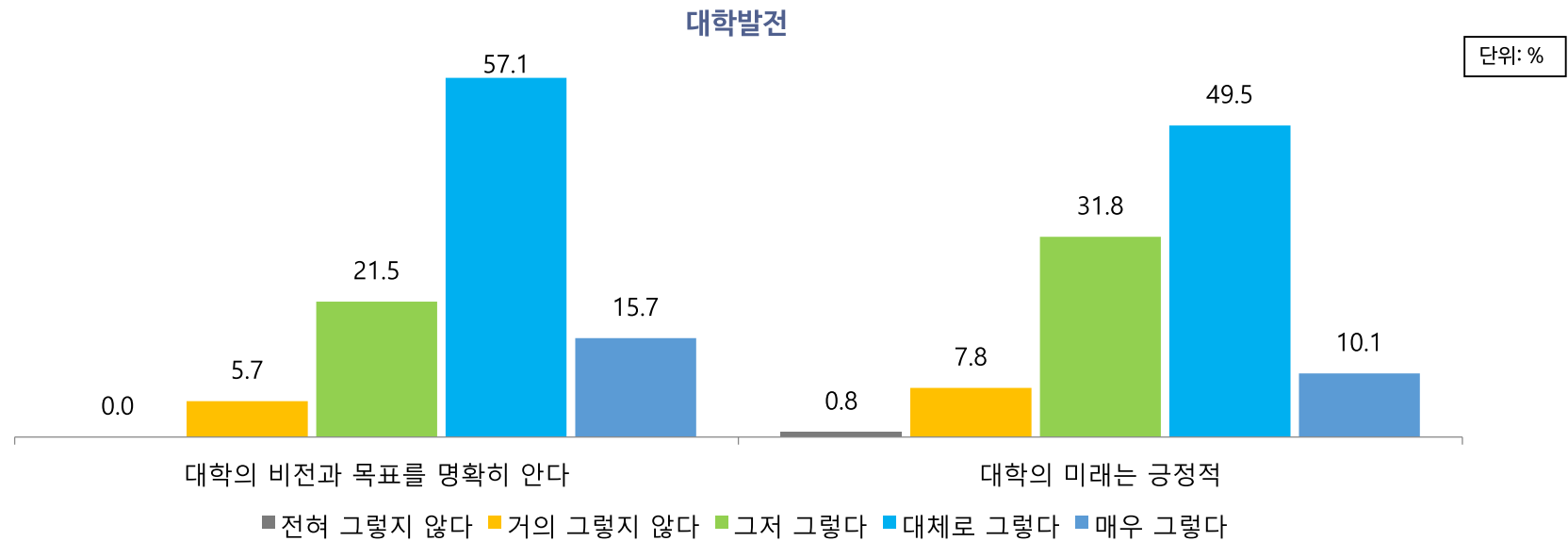
- 복지서비스 및 근무 시설에 대해 만족함.
- 휴게실 및 매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대학의 복지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음.



설문결과

● 대학발전

-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음.
-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대학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에 대한 의견

※ 본 의견은 응답자가 작성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음.

● 인사

-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절실.(전문성과 무관하게 배치되어 무지에 의한 과실 발생 및 시간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 적체된 승진, 불투명한 급여 테이블 및 계약직 직원의 문제 해결.
- 공정한 평가 및 승진, 성과급 제도.
-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경력관리를 고려하여 교육 및 인사 이동 필요.
- 하위 직급에 대한 급여인상 및 승진 등의 배려 필요.
- 인력의 고령화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업무가 어려움. 따라서 과장급 이상은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 과장급 이상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 55세 이상의 25년 이상 근속 직원은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평균 연력을 낮추고 직원의 전문성과 능동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도록 함.
- 평가는 모든 직급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저성과자를 발굴하여 스스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일정기간 저성과자는 적절한 인사조치로 조직에서 퇴출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직원들의 퇴직 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희망CDP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
- 초기 입사한 고졸(6급이하)의 승진과 임금(20년 이상 근속)이 심각하게 차별을 받고 있음. 10년 이내 입사한 후배 직원보다 처우가 못함.
- 연구행정원,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책 필요. 정규직 전환 기회 및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최근 입사 직원들과 융합 할 수 있는 분위기 필요.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우면서 일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승진 시 주위 동료 평가 가점 부여 .
-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에 대한 의견

● 소통

-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간 신뢰 강화.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배려의 마음.
- 대학에 대한 애교심 증진을 위한 구성원 간의 노력 필요.
- 관리방식의 변화 필요. 통제를 위한 관리 방식이 아닌 소통을 통한 관리 필요.
- 대학의 정책, 인사, 예산 등 모든 요소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 문화 형성 필요.
- 상하 수직관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교수와 직원 학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의견이 위로 전달 되는 경우가 잘 없으며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수행해야 함.
- 좋은 의견이 있어도 막상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의견 및 걱정 때문에 막힘.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구성원의 공감 형성 전제) 시도 필요.

● 리더십

-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미래상에 대해 고민하고 장기전략을 임기와 관계없이 추진.
-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
-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듣고 전체를 생각.
-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 제시.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에 대한 의견

● 기타

- 법인의 재정적인 후원 및 기금 확충.
- 대국민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
- 구성원이 보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인정과 격려하는 문화)
-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연구원)에 대한 인성교육으로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변화.
- 직원 교육 지원 및 일과 직장의 균형으로 우수 인력 확보.
- 설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 투자.
- 교수 채용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미흡.
- 수도권 캠퍼스 신설로 지역적 한계 극복.
- 윤리 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
- 포스텍만이 할 수 있는 연구, 교육, 행정 등의 아이템 개발.
- 대학의 전반적 분위기가 주인 없는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임. 변화를 위한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이 필요.
- 학교 경영에 관해서는 직원 의사와 결정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와 조직의 재편성 필요.
- 대학 고유의 문화가 있어야 함. 토론 교육 및 인문사회학부를 강화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함.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필요.
- 대학의 현재 재정상황 등 정확한 진단과 공유로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인식을 함께 함으로써 신뢰 관계 회복과 해결책 모색.

포스텍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설문 결과(종합)
- 설문 결과
-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조사 개요

● 배경

- 포스텍 개교 30주년을 맞아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조사를 통해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미흡한 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파악하여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설문응답	설문방법
포스텍 학부 및 대학원생	797명 응답 (학부생 343명, 대학원생 454명)	On-Line 조사
조사기간		조사내용
2016.9.19 ~ 2016.10.10		행정서비스, 네트워크 학과 · 교수, 학생지원 등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대학행정서비스	학과만족도	교수만족도	네트워크
• 업무처리, 행사 및 정보전달, 학생 의견 반영 수준	• 학과 자부심, 학과 활동	• 학생들에 대한 애정, 강의 만족도	• 선, 후배간 및 동기간 친밀도, 교수와의 관계, 외부기관과의 교류
학생지원	학교이미지	졸업 후 활동	진로 및 목표
• 교내외 장학금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연수프로그램 지원	• 대외적인 이미지와 평판, 대학의 미래	• 동문회 활동, 기부 참여 의사	• 인생의 목표 설정 여부, 진로계획 설정 여부, 대학의 진로 설정 지원

설문결과(종합)

● Key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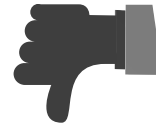
- 학생들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강함.
- 대학의 행정서비스, 교육인프라, 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 대학과 학과의 체계적인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족.
- 타 대학, 외부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부족.



강점

—

소속감, 자부심
교육 및 행정 서비스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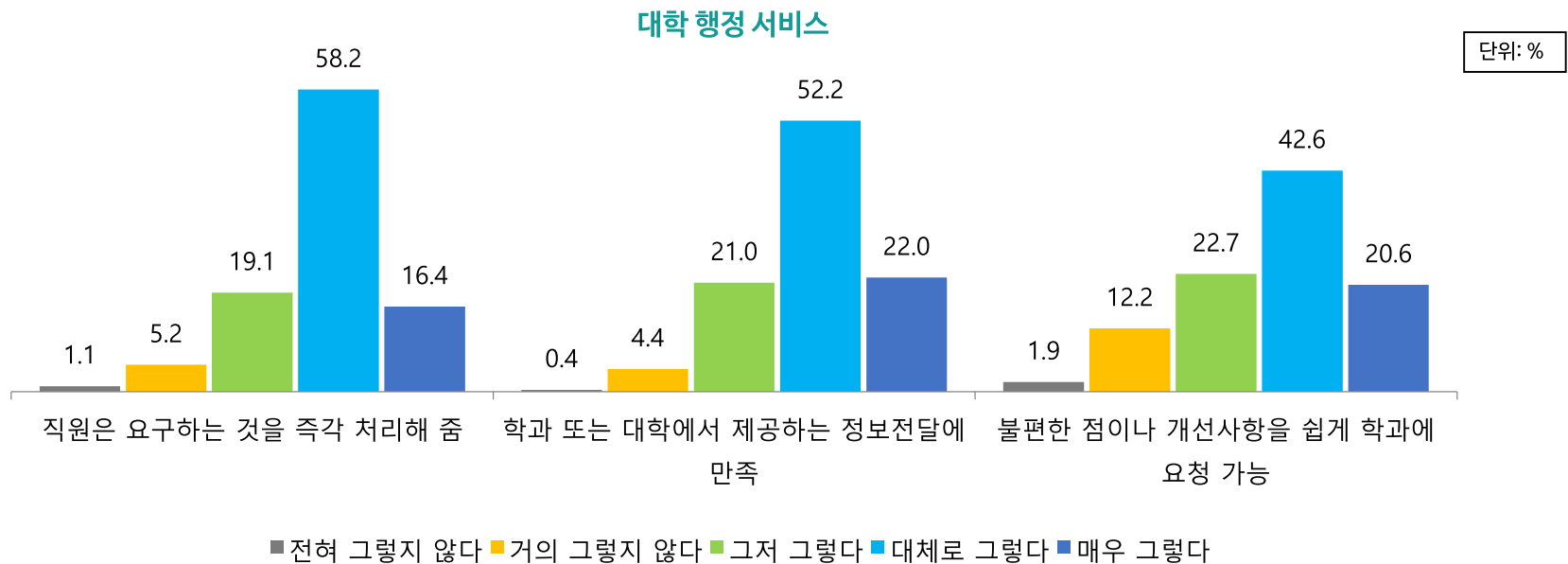
—

진로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의 교류

설문결과

● 대학 행정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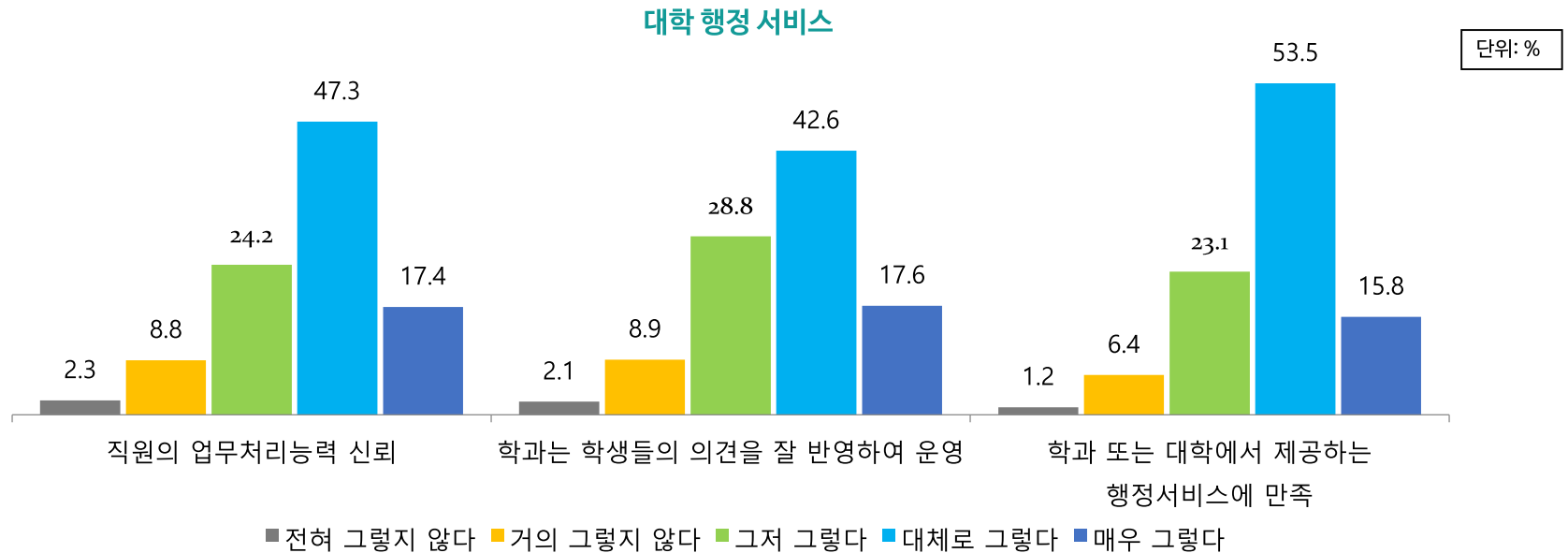
-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직원의 업무 처리와 학과 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전달에 대해 만족함.
- 학생들이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을 쉽게 학과에 요청할 수 있음.



설문결과

● 대학 행정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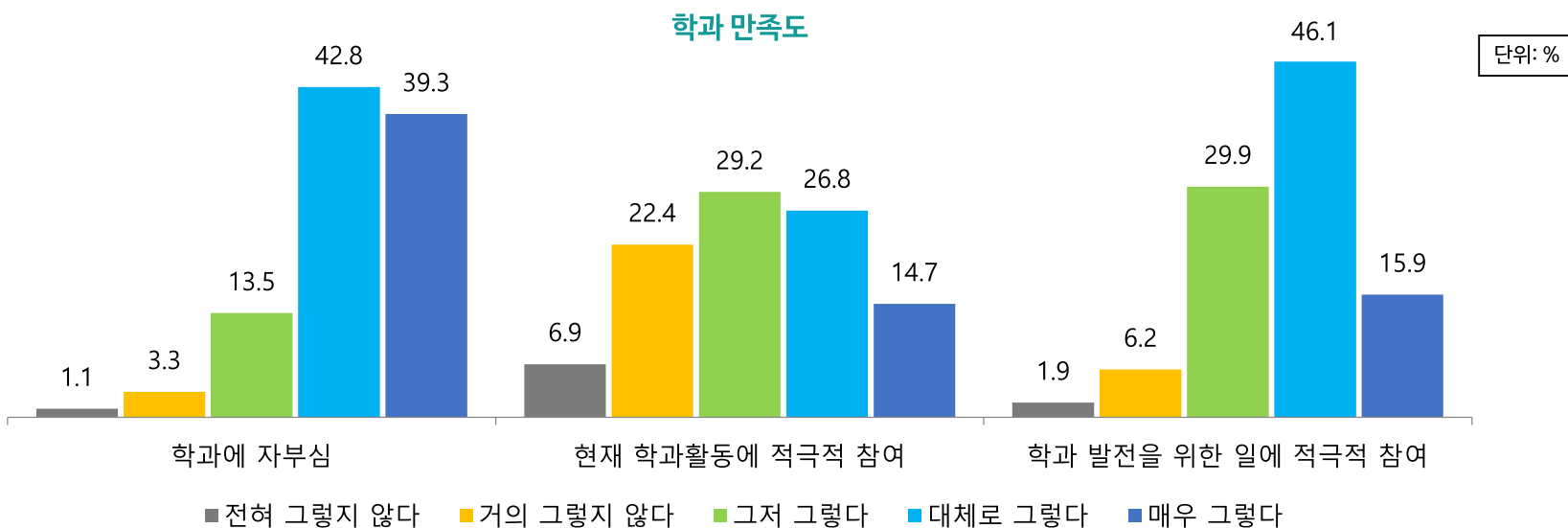
- 직원의 업무처리능력에 대하여 신뢰함.
- 학과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에 대하여 만족함.
- 학과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함.



설문결과

● 학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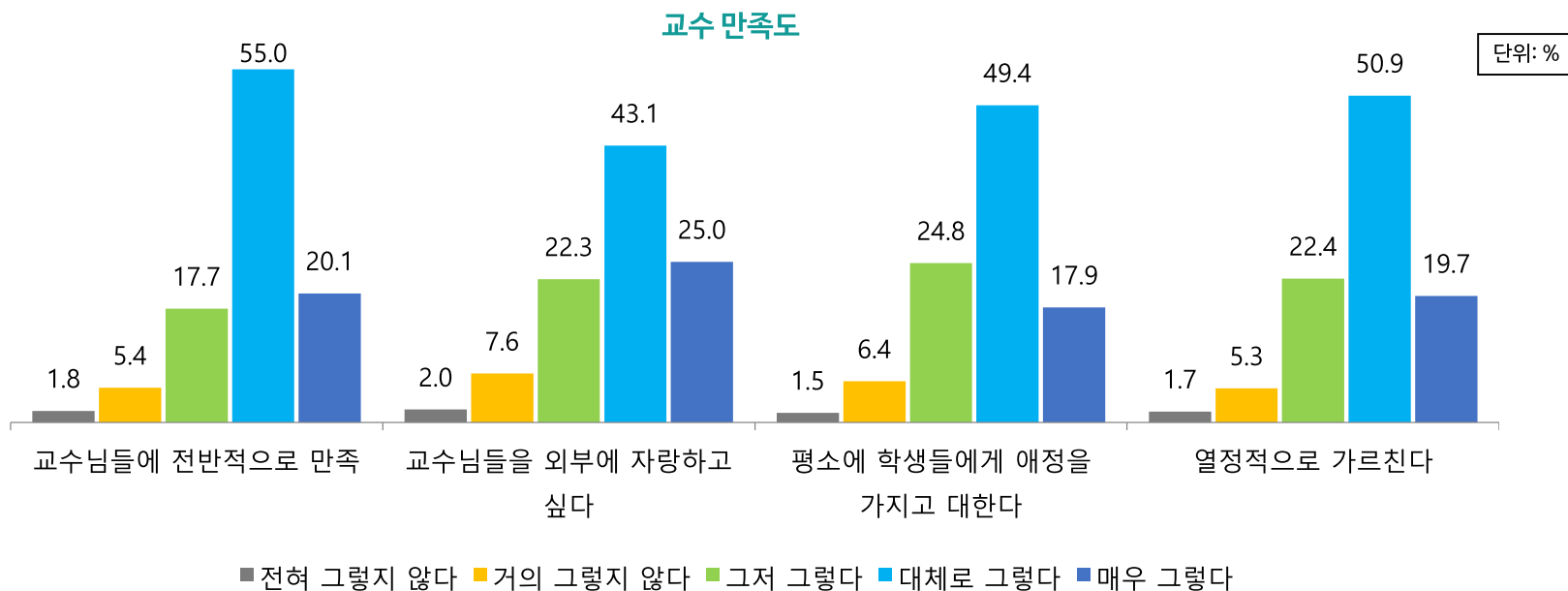
- 소속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높음.
- 학과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음.



설문결과

● 교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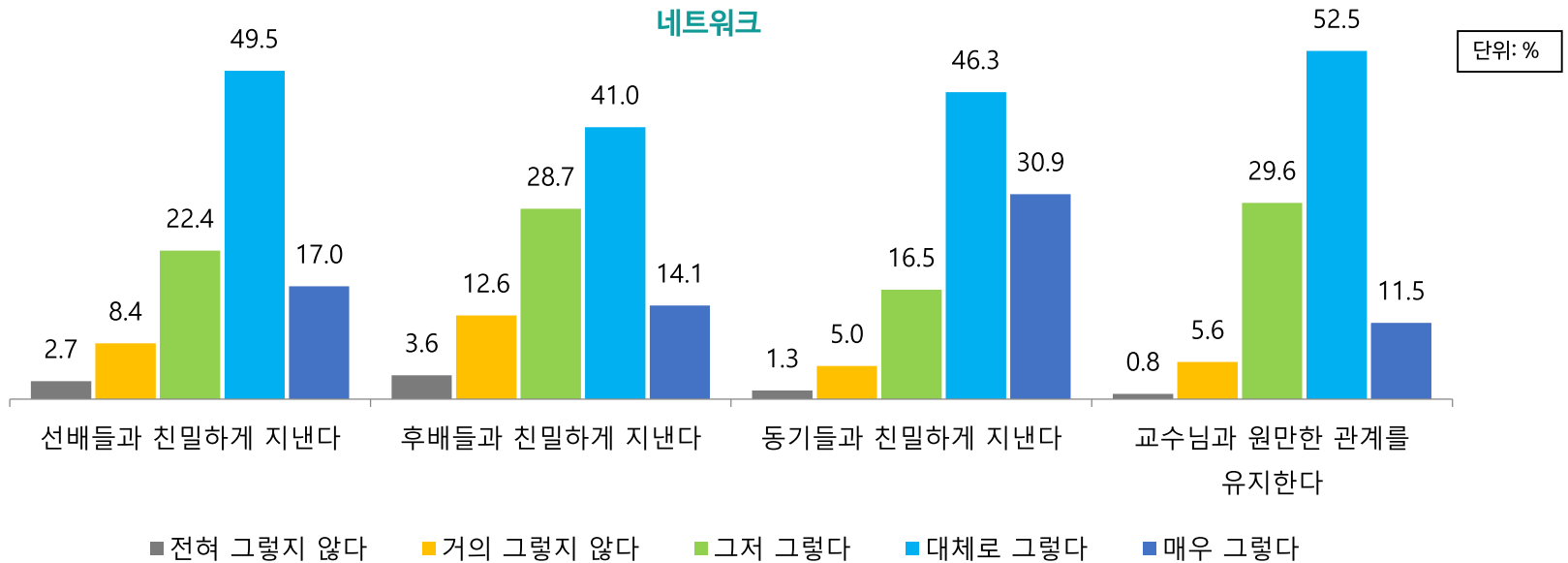
-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
-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적인 가르침에 대해 만족함.



설문결과

●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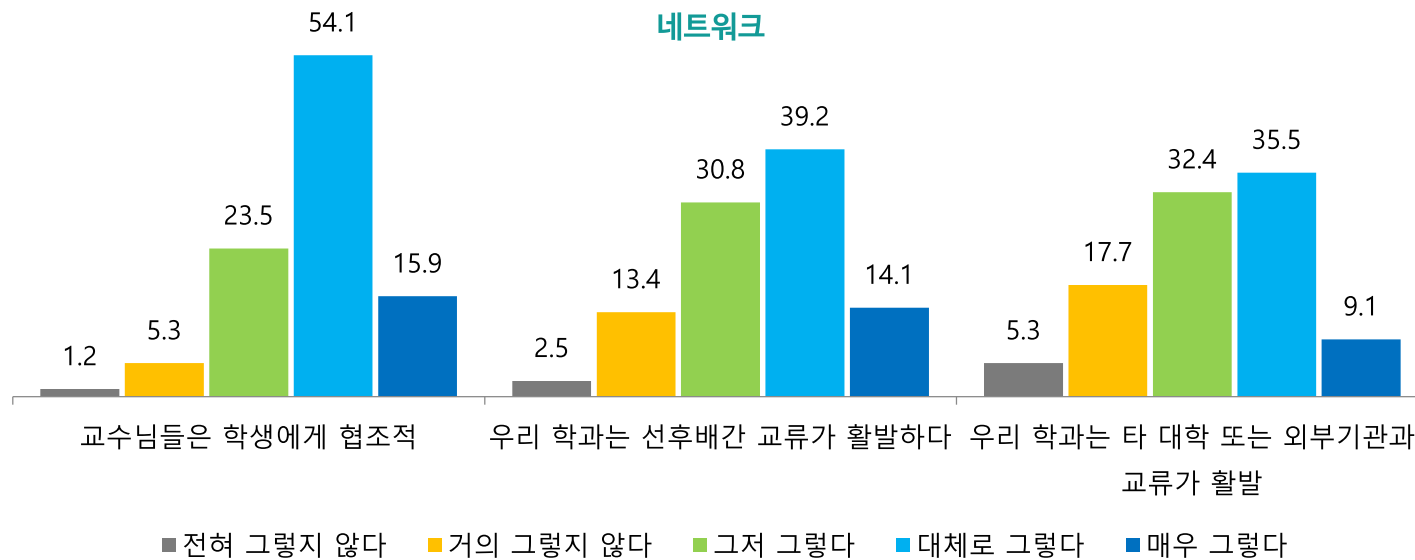
- 교수와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설문결과

●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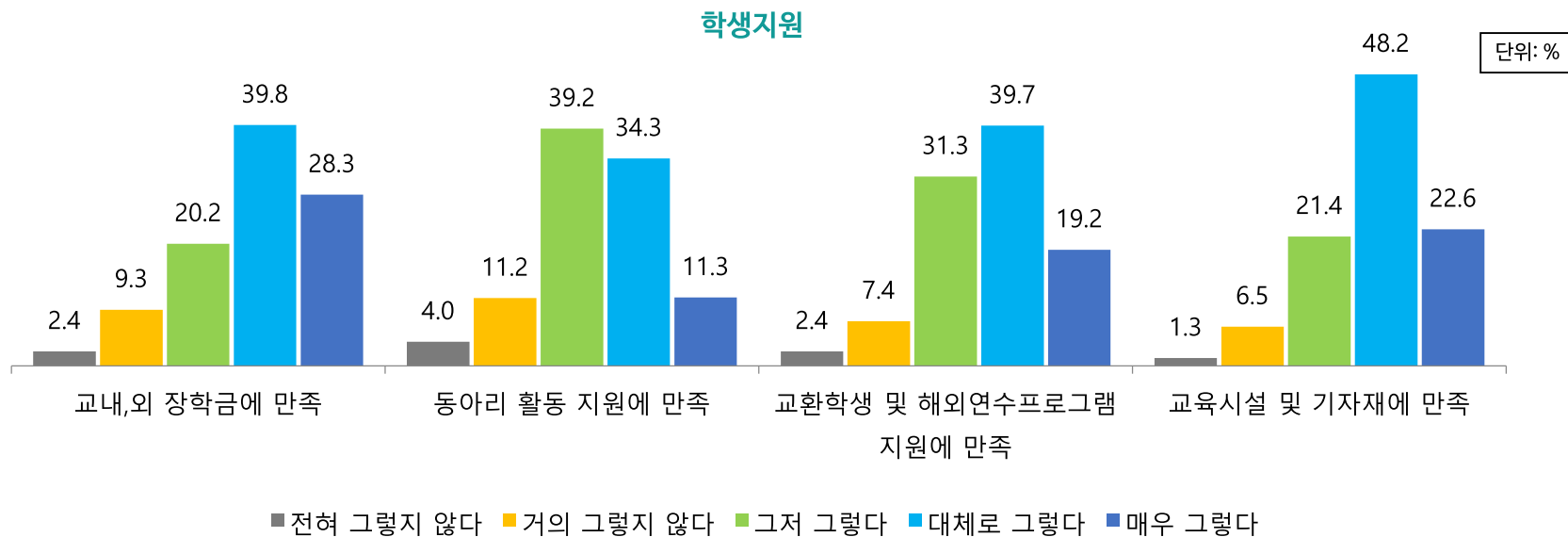
- 학과의 선·후배 간 교류가 활발함.
- 학과의 타 대학 또는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설문결과

● 학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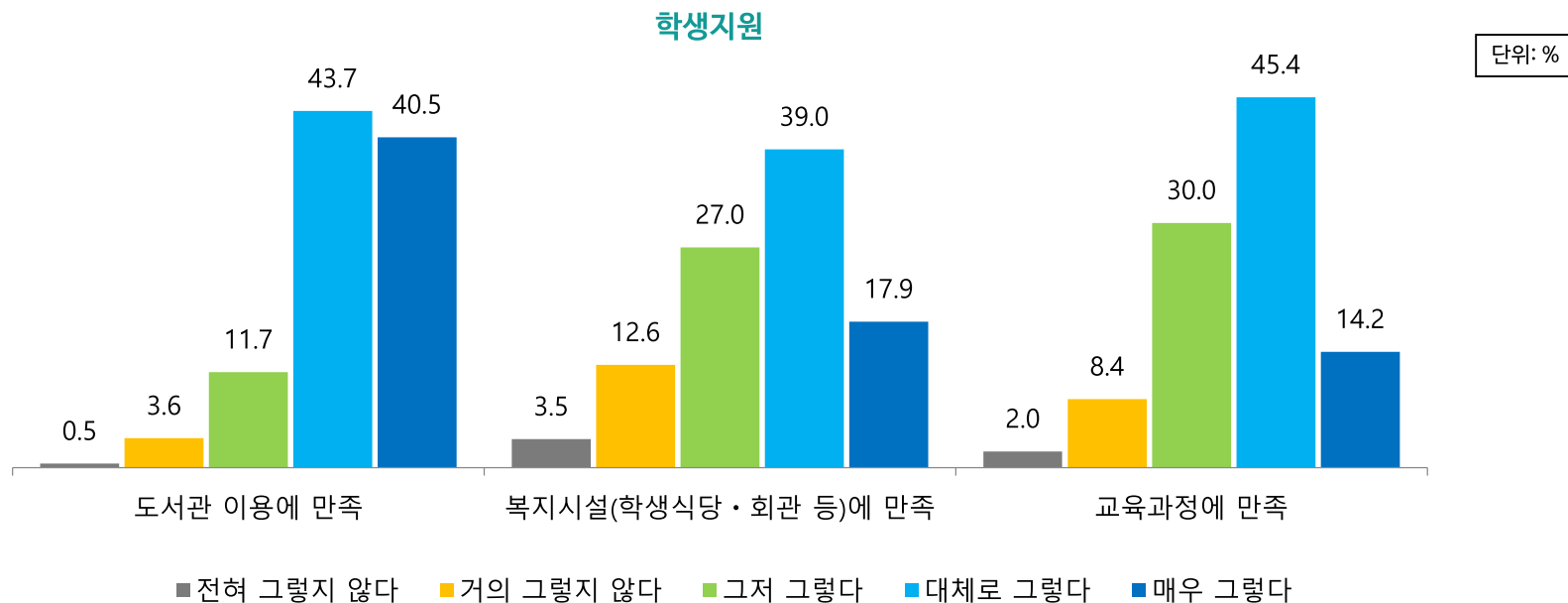
-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내·외 장학금과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대해 만족함.
-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만족함.
- 동아리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설문결과

● 학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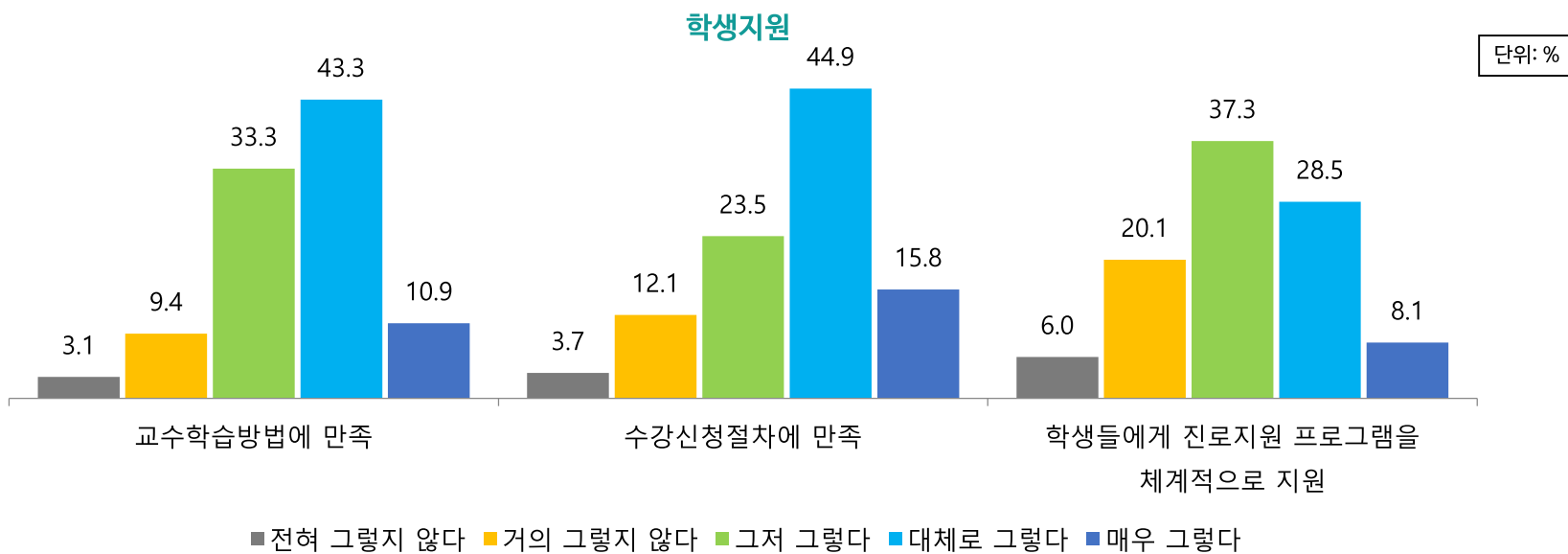
-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음.
- 복지시설(학생식당 · 회관)에 대해 만족함.
-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함.



설문결과

● 학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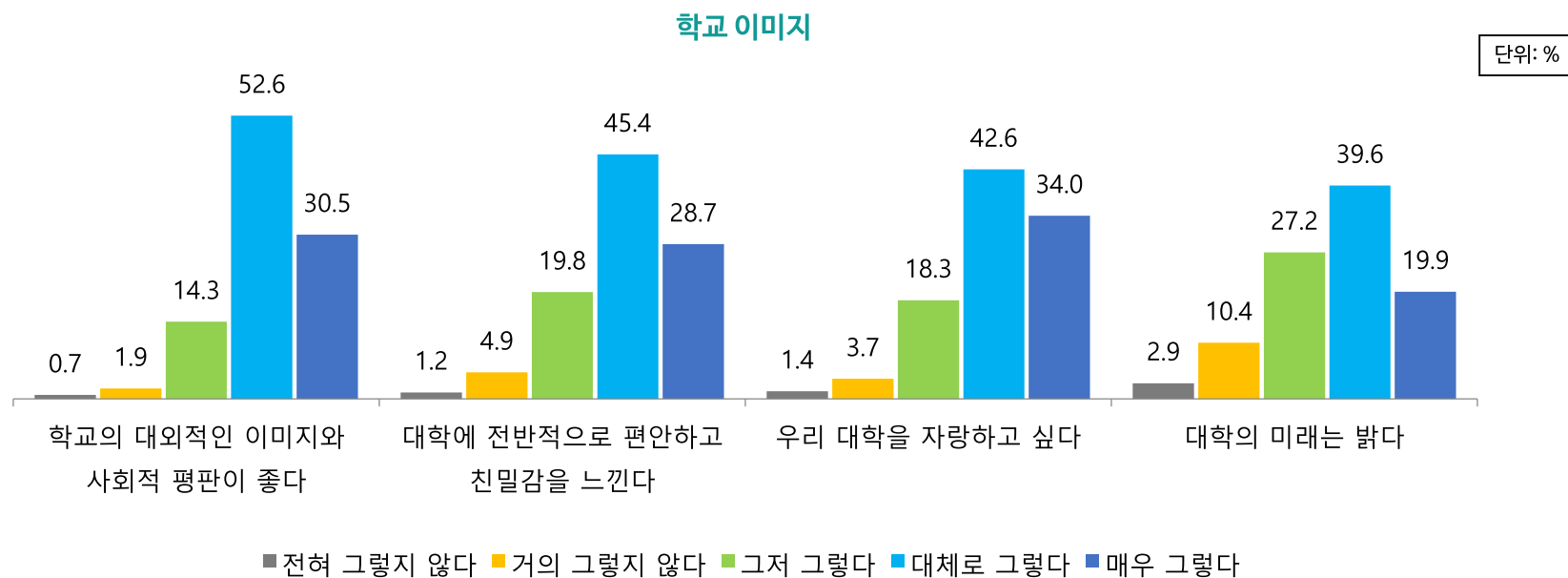
-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만족함.
- 학생들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



설문결과

● 학교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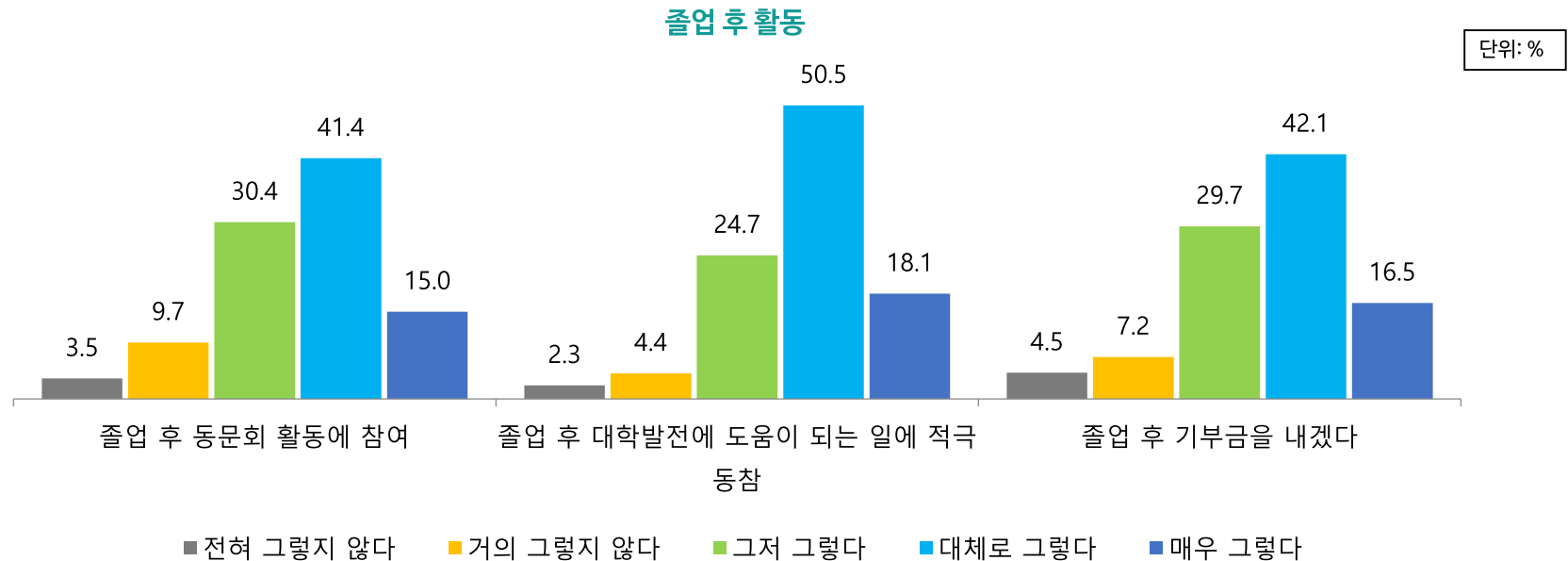
- 우리 대학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사회평판에 대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음.
- 대학에 대한 높은 친밀감과 대학을 외부에 자랑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음.
- 대학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



설문결과

● 졸업 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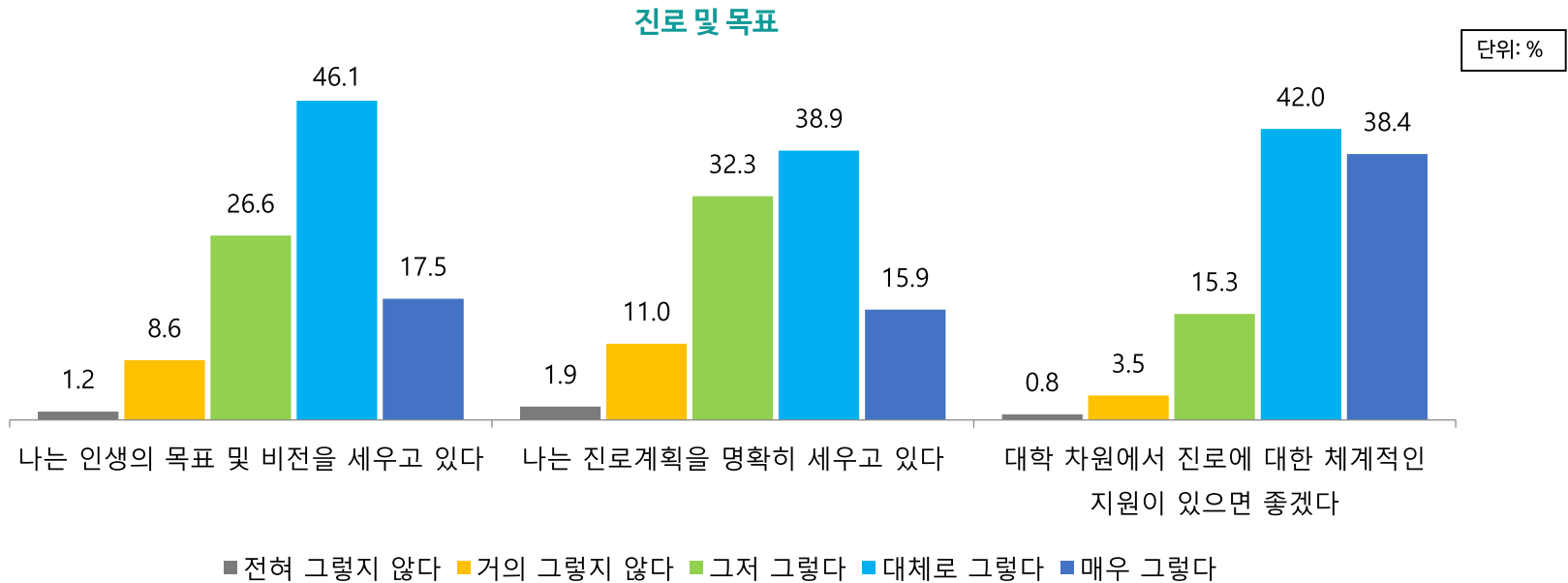
- 졸업 후에도 동문회 활동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많음.
- 졸업 후 기부금을 내겠다는 응답이 많음.



설문결과

● 진로 및 목표

-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응답이 많음.
-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음.
- 학생들은 대학 차원에서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본 의견은 응답자가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음.

● 교수

- 퇴직하는 교수(1세대 교수들의 은퇴)들의 적절한 세대교체와 우수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수진의 정비.
- 교수의 정년보장을 쉽게 해서는 안되며 업적 평가의 명확화하여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교수의 퇴출.
- 교수 평가기준의 변화.(저널보다 학회 위주)
- 서울대 출신의 교수 임용보다 활발한 자대 출신의 교수 임용 필요.

● 학생

-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수학생들 유치에 힘써야 함.(전반적인 학생 수준 저하)
- 연구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 진출.
- 인재상 바로 세우기.(포스테키안이란 ...이다)
- 과학고생의 비율이 높아져서인지 신입생에게서 포스테키안이라는 이미지를 받기 힘들.
- 꿈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연구활동 이외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
- 다른 과기원에 비해 대학원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부족.
- 진로를 탐험할 수 있도록 강연, 체험학습 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제공.
- 해외 유학생 유치.
- 취업과 관련된 선배들과의 설명회.
- 학업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배려 필요.(일부 교수는 성적으로 학생을 심하게 차별한다)
- 여학생 생활편의 개선.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학생

- 리더십배양
- 교수님과 수강신청을 자유롭게 상담하고 선후배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제도.
- 카이스트와의 교류와 같이 다른 과학기술원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
-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활성화 및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 대학원생 인권 개선.
- 동문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 아이가 있는 여성을 위한 시설 확충.
-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제공. (SES프로그램)
- 학생들의 문화생활 지원. (연극, 뮤지컬 등)
- 교수와 대학원생 관계에서 사적인 부탁이나 공휴일 호출 등의 자제.
- 대학원생 위주의 편의시설, 교육환경 개선.
- 장비사용의 용이 및 장비사용 교육에 대한 많은 기회 제공.
- 다양한 장학금 개설. (성적장학금, 교재보조비, 영어 학습비 지원 등)
- 무학과 제도에 대한 단점들의 조율.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기존의 포스텍만의 가족같은 분위기를 유지)
- 대학원생도 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으로써 예의 있게 대해주기를 바라며 미친 듯이 공부만하고 시킨 일을 수행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는 구시대적인 대학원의 모습이 아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로 대해주기를 바람.
- 대학원 모집 시 전액 장학금 지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상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야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내용을 정정하여 학생들이 큰 기대를 품고 와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람.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교육

- 전공과목의 경우 외국인 수강생이 없다면 한국어 수업이 내용전달이 충실할 수 있음.
- 공대생으로서 소홀해 질 수 있는 기본소양을 채울 수 있는 강의 필요.
- 영어공부의 개혁.
- 학부와 대학원사이의 교류 확대 및 공부의 연구의 연계.
- 학생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객관식, 주관식 시험의 폐지.
- 학습법/연구 노하우 등의 공유 개발하는 분위기.
- 궁금한 것을 캐낼 수 있는 식의 배움이 아닌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는 수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궁금한 것을 묻고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의 개선 필요.

● 연구

- 서울대, 카이스트와 비교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 (연구비 오버헤드는 많이 가져가서 연구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 주머니가 넉넉한 것도 아님. 장기적 관점에서 포스텍이 50년, 100년 후에도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비교불능한 높은 지위가 있어야 하나 그런 것이 보이질 않음)
- 연구하기 좋은 학교 일뿐만 아닌 연구하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중요.
- 교수자들의 권위적인 교육과 토론문화, 창의성보다는 노동시간으로 억압으로 제어하려는 교육 및 연구방식으로는 창의적인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움.
- 카이스트와 비교하여 사회에서 주목 받는 연구나 유용한 연구가 부족함.
- 기초분야 연구.
- 대학원생의 연구자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 필요.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대외홍보

-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세계 대학 랭킹 향상.
- 세계랭킹이 높다 하나 지역사회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개선.
- 일반인들 대상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지역사회(포항)의 문화개발에도 참여 및 지역에서의 대학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수도권 지역에서 문과의 경우 포스텍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학교의 대외 홍보 부족.
- 지방의 작은 대학, 몰락하는 귀족과 같은 느낌의 이미지 개선 필요.

● 소통

- 학내구성원과의 소통 강화.
- 모든 구성원이 특정 현안에 대해 상시적이며 자유롭게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경영층의 권위주의 탈피 및 명확한 비전 제시.
- 신뢰회복. (정책시행 시 신뢰를 할 수 없음. 지시에 의해서 하는가 보다하는 느낌이 듦. Flipped Learning의 경우와 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구호는 혁신적이나, 내용이 변하지 않음)
- 대학 정책수립 또는 변경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에 대한 의견

● 행정

- 행정처리의 잦은 지연과 안일한 태도방식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개선 필요.
- 주거환경에 대한 사감실의 처리방식 개선.
- 지진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향후 내진설계가 된 건물로 교체.
- 행정프로세스 자체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개별 학생, 교수 모두가 포비스 접속을 위해 낭비하게 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포비스 접속방법의 원상복귀.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는 정책의 개선)
- 구성원의 비리를 숨기려 하지 말고 철저하고 투명한 처리와 엄벌.
- 연구진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연구비 집행의 간소화.
- 경쟁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제도 등의 벤치마킹.
- 포스코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재정을 창출하는 등의 재정 확충.
-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확대.
- 학교가 500억 손해를 본 이후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예산 확보가 중요.

● 기타

- 개교30주년을 맞아 더 큰 목표를 지니고 가야 함.
- 의과학분야의 발전과 교내 우수학생들의 타 대학 의예과 편입이 방지 등을 위한 의예과 대학원 설립.
- 지역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 경쟁대학과 비교하여 뚜렷한 장점 필요

개교 30주년
포스텍 구성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 별첨. ‘대학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학생 응답 원문

※ 설문조사에 기입된 내용을 가감 없이 나열하였음.

● 교수

- 교수충원(총8건)
- 교수유출방지 및 외부에서의 교비 지원 확대(총2건)
- 교수 교체 시기(현재 1세대 교수들의 은퇴)를 적절하게 넘겨 우수하고 다양한 교수진으로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 연구 분야 외에 각종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할 것. 포스코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인 재정 창출 소스를 마련할 것.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세계 대학 랭킹 향상.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시선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
- 1. 신입 교수의 채용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2. 교수, 학생 비리를 숨기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할 것
- 강의 질(quality) 개선, 연구 질, 연구실 문화, 연구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교수들의 정년보장을 쉽게 해줘선 안되고,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교수는 과감히 내보내야 한다. 거만떨지말고 좋은 교수를 초빙하기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할 것이다. 연구비 횡령을 엄벌하여 학생들의 피같은 인건비가 약탈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학원생들의 과도한 근로 (연구라고 불리지만 근로에 가까운)를 지양하여야 하고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모든 행태의 악을 근절해야한다. 학교에 커뮤니티(광장)이 활성화 되어, 이슈화가 필요한 문제들이 제때 조명받아야 한다.학생식당의 식질이 개선되어야 한다.기숙사를 새로 건설하여 5~6년차 대학원생들이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교수

- 교수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저널보다 학회 위주로)졌으면 좋겠습니다.
- 비전을 가진 신입교수임용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재학생(학부생)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실적 저조한) 교수진에 대한 교체
- 자대생 출신의 교수 임용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애교심이 더욱 늘어날것이고 학교에 대한 비전도 보일것 같다. 말로만 우수한 연구 중심대학이라고 하나 결국에 임용되는 교수들은 서울대 출신인 지금의 현실에선 앞으로의 학교 미래는 더욱 어두어질 것 같다. 그리고 풍부한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테뉴어를 받은 교수님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받은 교수님과 아직 테뉴어트랙에 있는 교수님 간의 교육 및 연구 열의에서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을 배장받은 교수님들도 더욱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의 인프라가 노화되었고 재정 상황 역시 예전 입학당시에 비해 부실해진 것을 느낍니다. 적극적인 외부 기금 유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학과교수를 늘리는 것. 물리학과 교수진은 규모가 너무 작고 특정분야에 치중되어있다. 여러 분야의 협동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학생들도 연구실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학생

-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생들 유치에 힘써야 할 듯. 요즘 전반적인 학생 수준이 낮아진듯...
- 많은 우수한 학부생이 포스텍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
- 수준 높은 학생과 교수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능력
- 신입생 유치 및 대학홍보. 일부 지역에는 우리 학교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인지도가 타 대학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 우리 대학의 차별성을 유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수 인재들을 잘 끌어오고, 그에 맞는 대우가 잘 이루어 지면 좋겠습니다.
- 우수학생 확보
- 인적 자원 (교수, 학생 및 직원) 확보. 인적 자원 활용 (교수 및 학생은 연구 외의 서류작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음으로 효율 최대화)
- 일단 2018년부터 도입된 신입생 무학과 제도는 매우 좋은것 같고, 1학년 때 진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후 학과 결정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좋은 평판을 통한 우수학생유치가 제일 급하다.
- 지방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지원,조건을 통한 우수한 학생유치...
- 학생수 증가와 그에따른 교수진 확충
- 2018 단일계열로만 뽑으면서 생기게 될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그에 걸맞는 여러 부수적인 방안을 통해 기존의 POSTECH 만의 가족같은 분위기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총4건)

● 학생

-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수와 행정하시는 분들의 의식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원생이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하는 노예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대학원생도 한 사람의 인권이 있는데, 학위를 빌미로 의사표현이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당한다면 우리 대학이 명성이 높더라고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일부 행정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생을 동네 애들 처럼 대하는데, 학교의 구성원의 한명이며 교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으로써 예의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친듯이 공부만하고 시킨일을 수행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는 그런 구시대적인 대학원생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둘째, 대학이 학생 모집 시 전액 장학금 지원을 광고하고 있는데 실상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장학금 지원이 됩니다. 잘못 홍보되고 있는 내용을 정정해주시고, 학생들이 잘못 홍보된 내용에 따라서 큰 기대를 품고 와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업가나 정치가가 아니다. 학생은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교수의 도구가 아니다.
- 대부분 교수-학생(특히 대학원생) 사이가 너무 수직적이다.
- 해외 유명 대학들은 교수사이가 수평적이라 서로 농담 및 장난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학교는 그 분위기가 너무 수직적인 면이 강해, 교수와 함께하는 자리(수업, 랩미팅, 식사자리, 여러 행사 등)에서 분위기가 어색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교수당 학생비율이 적다는 우리학교만의 장점을 제대로 못살리고 있는 느낌이다. 수평적으로 되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학생들도 교수를 좀 더 편하게 대하며, 그 결과 수업시간에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이 혹시나 바보 같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랩미팅 자리에서도 좀 더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부담없이(잘못되거나 바보같을거라는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여러 행사 참여도도 높아 질 것이다.

● 학생

- 기업가 정신
-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 공부를 하는 학생에서 더 뛰어넘어 학문을 하는 학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또 그러한 인식을 갖고 대해주는 것. 많은 학생들이 과제에, 수업에 치여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든다. 과제와 수업을 잘 따라가서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지못해 끌려가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부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학생들에게 공부 이외에 국가와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연구 중심 대학이어서 모든 학생이 국가 연구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포스텍의 본질을 잃은 것이라 생각된다. 포스테키안이라면,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형태는 연구활동 이외에도 다양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 APGC를 통해 창업활동에도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믿고 지원해 주었으면 싶다.
- 단지 심화된 내용의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역할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과 하고싶은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 에서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진로 탐색을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한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대학원 생입니다. 여기의 교수님들은 높은 실적을 쌓아야 정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적 주의가 만연해지고, 학생들의 업무는 많아지고, 상명하복의 관례속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하게 되면, 박사급 졸업자의 공급 초과 등으로 인해 진로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 합니다.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 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 대학원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 대학원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취업과 관련한 세미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실제 학부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 선배들의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먼저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 및 멘토링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학생들이 정보에 취약하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서 그럴겠지만, 취업이나 졸업후의 자리를 알아볼 때도 그리 걱정없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요즘의 현실은 소위 말하는 학벌이라는 것의 영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정보에 취약하면 사회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과정을 밟고 나서 대기업 과장급으로 가는 것이 창창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되어야 학교에 대한 애정도 클 수 있고 후배들을 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문제라면 입시설명회와 같이, 주요 도시들에서 선배들과의 만남 시간을 충분히 갖으며 포스텍이라는 세력을 통해 한발짝 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소수정예라는 우리대학만의 특징에 걸맞게 지금까지 잘해온것 같다. 선후배간의 교류라던가, 다양한 연구참여프로그램 경험 가능, 단기유학 등등 최근에는 인턴십프로그램까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우리 대학이 도약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보일만한것은 크게없는것 같다. 다만 많은 일반인들이 여전히 포스코와 포항공대를 벗어날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잘되는 편이 우리 입장에서도 좋을것 같다. 우리 대학에서 그 쪽의 연구를 같이 산학연 연계해서 해보거나 하는 것을 좀더 활성화 하는것은 어떨까 싶다. (아직 학부생이라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잘 모를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 대학은 지방에 위치한다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자대대학원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중 다양한 경험을 위해,또 학교규모가 더 넓은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이나 해외를 희망한다. 이러한 것은 좀더 학교에서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할 문제이다. 학부때 수준높은 교수님들께서 죽어라 가르쳤는데 정작 대학원을 다른곳으로 가는 것은 분명 바꾸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 학생

- 수도권과 주변 대학과 떨어져있기에 다양한 진로와 그 진로로 가기위한 멘토링이나 경험을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SES와 같은 프로그램이 늘면 좋겠습니다
- 외국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생들 졸업 이후에 포스트 닥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 지원 등)
- 정말 많은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수많은 공부 수반되는 점은 사실이지만 공부보다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부생에 대한 지원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인지부조화 때문에 학부생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군면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있고 대학원 진학이 싫어 무작정 군대에 입대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어 중대한 의사결정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차원의 학생들을 위한 진로 수립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잘못된 방향의 진로선택에 의한 인재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우리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로 탐색 그리고 이에대한 심층 상담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건)
- 포항공과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관심만 있다면 충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을 고려해보자면 아직까지 사회적 프로그램이 낮고 학생들 또한 대부분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만큼 사회에서 타 대학(서울대 및 카이스트)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 내에서 혹은 동문 기업에서 전문 연구원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을 도우며 고급 인력의 낭비를 막아야 함

● 학생

- 학부생과 대학원생들 대상으로한 연구관련 지원에 비해 취업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기업에서 학교에 와서 학관에 서 진행하는 모집행사 있기는 하지만, 학과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랩투어와 같이) 학생들의 참여를 돕는 자리가 마련된담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생긴 SES프로그램에 덕분에 취업준비에 큰도움이 되어 좋아진 점이 있었습니다.
- 학부생이라서 학부생 입장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학교차원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POSTECH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 부분에서 리드할 프로그램 혹은 멘토가 없어 주변 사람들 혹은 선배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경험합니다. 1학년, 2학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 그냥 뭐 대학원 가겠지 남들 다가니까...'라고 딱 한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증가할 수록 군문제와 본인의 학업 및 진로 문제 등이 한번에 복합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교에서 시행한 SES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미래의 진로 혹은 학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 학사졸업후 취업문을 조금더 열어주어야할것같다
-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이 좀 더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이지만 학부생 때 좀 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생각을 못해본게 많이 아쉽습니다.
- 학생들에게 교육뿐만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수록 더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이 가능할것같습니다.
- 학생들에게 더 맞는 쪽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주었으면 한다
- 학생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

-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1~2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전에 가졌던 자부심이나 열정을 잃고 주변의 뛰어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존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일이지만 학생들이 포스텍에서 바닥이더라도 사회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정신적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 과학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공계에 남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진로 및 진학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
-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기중에 과제를 하는 데에만 시간을 쓰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더 멋진 이공계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없더라도 사회의 많은 부분을 접했으면
-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에서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입주하여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창업 빌딩이 있다고 들었고,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 학생들이 학계와 업체에 진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벤처 및 창업 쪽으로도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길도 닦아줬으면 합니다.
-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선 대학원생들이 졸업후 취직을 하거나 부모님께 지원을 받지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만 매진 할 수 있게 현재 대학원생들의 비싼 등록금 완화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 대학원생과 교수님간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갑과 을의 관계를 탈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 대학원생의 인권
- 대학원생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신경써주신다면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서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대학원생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말출근 등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연구실이 매우 많습니다.
- 대학원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지진에서 일부 교수는 학생을 대피시키지 않고 계속 건물안에 있도록 요구하였다. 물론 그 상황에서 교수도 함께 있었지만, 대학원생은 생명에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방침대로 지진 중에도 대피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대학원생은 교수의 눈치-현재 교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미래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을 를 보며 불안에 떠는 셈이다. 생명에 대한 선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교수의 선택에 의해 그 일을 하는 꼭두각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과연 그렇다면 연구 능력은 발전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연구 및 업무 전반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 필요. 교수평가 잣대의 엄격화 필요. 안전 안전 안전!!!
-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적당한, 올바른 대우를 받도록 하는것
-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관계를 너무 수직적 이지 않고 원만하게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을 어엿한 성인, 존엄한 인격체, 학교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
- 학생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 학생과 관련된 일의 의사결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분위기 조성

● 학생

- (포스테키안이란 --다.)와 같이 인재상을 바르기 세워야 합니다.요즈음 신입생에게 '포스테키안답다'라는 이미지를 받기 힘듭니다. 과고생의 비율을 높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학교 랭킹도 중요합니다. 서의호교수님과 같이 랭킹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 학교차원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포항시 자체의 문화개발에도 힘써야 합니다. 포항시가 살아야 학교가 삽니다.
- 리더십 배양, 네임밸류 높이기, 창업활성화
- 대내외 평판 보다 학생들의 교육의 만족도와 여건에 더 귀 기울여 주는 것. 개인적으로는 기초필수 과목이나 일부 과목들의 수업 내용이 너무 따라가기 힘들거나 버거운 경우가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진 이후에 학교 시설의 안전이 전부 확보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강을 하지 않은 것 또한 학생들의 안전보다 학업을 우선시 한 것 같아 학교에 대한 불안을 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석사과정 차별? 예비역 편의를 봐주는 것, 좀 더 다양한 교양
- 공부 외적인 학생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
- 과기원에 비해 대학원생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합니다. 수업을 듣지도 않는데 등록금을 내야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할 부분이며, 스타 교수의 유출뿐만 아니라 영입활동에도 학교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포스텍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우수 인재들이 멀리 포항까지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멀리 포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한 혜택은, 다른 우수 대학들에 비해 금전적으로 오히려 훨씬 열악합니다 (기본적인 장학금도 덜 받는 정도인데, 과기원에서 박사수로 후 등록금을 안내는 시기와, 여전히 등록금을 내야하는 우리학교의 통합 5~6년차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벌어집니다.). 지금 생각나는 우리학교 대학원의 이점으로는, 당장 서울의 대학들에 비해 전문연구요원을 하기 수월하다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에 대해 더욱 큰 지원과 함께 우수한 교수님들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 과학을 발전하고, 나라를 알리는 뛰어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면 그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를 포함해 복지가 타학교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원 기숙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은 양의 학습은 과목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나, 더 중요한 학생의 진로를 찾기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학습도 학습대로 하면서, 좀 더 학부, 석사, 박사 할 것 없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강연, 체험학습 등 앞으로 무엇을 할 지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숙사 비용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공대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비용 부과도 문제이지만, 대학원 초과 학기 학생들에게 2배의 기숙사비를 걷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있어도 늦게 하고 싶은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에게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책을 결정할 시에,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가 4년간 포항공대를 다니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자부심은 학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다. 다른 학교는 등록금문제 때문에 연일 시위를 하고, 정치적 문제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학점이 일정 성적 이상만 되면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그 이외에도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여 서울이 아닌 포항에서의 학교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사실, 저번 학기에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그 곳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의 교육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소수정예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모두 흡수해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아낌없는 투자가 애교심을 더 투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학생

- 다른 곳과 차별화된 지원
- 대학 홍보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지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학교가 공부만 죽어라 시킨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학습도 좋지만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총 7건)
- 미비한 학생지원, 기숙사 무료화, 식당 식질 개선 서울대, 카이스트를 제쳐두고 포항까지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학생 복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고 학생들한테 거둬가려는 1차원적 생각 말고, 학교차원에서 행하는 많은 수익사업을 벌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 외국인 기숙사 시설 노후, 외국인을 위한 식단이 없는 점 등 이들을 좀 더 배려해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예전 포항공대는 지리적 여건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였으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타 대학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식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록금은 점점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라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 학생

- 장학금 문제. 대학원 전액 장학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입학해보니, 반정도만 나오고 알아서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로 벌어야하는 구조. 또한 몇몇교수의 강의질이 매우 떨어지나, 어떤 조치도 없음. 강의평가 존재이유 모르겠음.
- 줄어드는 메리트와 이로인한 선호도 감소. 지속적인 추락.
- 초기와 같은 우수한 장학지원과 대외적 이미지를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ex) 카이스트
- 편의 시설 및 여가 활동에 대한 기회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부과정 중에는 학과 내 많은 부분에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서포트해주려는 점을 어느정도는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연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이루지는데,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복지나 연구, 생활 전반적인 면모는 학과의 도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 표면적인 것이 아닌, 실제 학생의 입장에서 개선된 복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학생 복지 개선 및 대학원생의 복지 개선 /신진과학자의 지원 /학생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생 복지가 더 개선되고 타 대학과의 (학생 차원에서) 교류가 좀 더 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더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적 부담이 적은 서비스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제공되어야 함.
- 그나마 가까운 경남 등의 대도시와의 조인을 통한 가능한 대외활동 역량 강화
- 외국 학교와의 교류
-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 학생

- 동문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 학생 수가 매우 적고 개인적이다 보니 같은 회사에 취직하여도 취직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며, 공무원 등의 진로를 생각할 때 분명 과 선배가 일을 함에도 동문회를 통해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회사나 정부에서 일하는 우리 학교 출신 분들이 뭉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타 학교(서울대, 카이스트)에 비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 방학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번 여름방학 SES도 그런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
- 소규모인만큼 구성원간의 친밀함과 응집력은 타대학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반만 보아도 그렇죠. 하지만 그 대학 구성원수의 차이때문에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도약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대학 못지않은 학교간의 교류나 행사등이 갖추어져 학생들의 관심을 얻고 참여도를 높여 애교심도 올리면 우리 대학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 졸업한 선배와의 연락망 구축,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제공, 선배들의 진로 데이터베이스구축
- 지방의 한계가 매우 큼니다. 서울권 대학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우리학교는 지역이 아주 고립되어있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학순위도 조금씩 떨어지고있고 서울권에서는 굳이 우리대학에 오려고 하고 있지않습니다.학부졸업생들의 다수도 서울권대학원으로 많이 가고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과의 교류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가 이에 대응하는 투자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 지역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예를 들어 대학원생의 경우 경쟁 대학 (예: 서울대, 카이스트)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좋지 않은데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적 한계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잠재력이 큰 학생들이 포스텍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

- 지역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생 데려오기 위한 방안 모색학부 1,2학년 대상 또래 그룹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상담 프로그램(?) 필요. 비교적 폐쇄된 학교라는 생활공간 안에서 형성된 또래 문화나 분위기가 학부 초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눈이 늦게 뜨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 지역적으로 지방에 위치한 것에 대하여 학기 중에 대외활동을 쉽게 접할 수 없다는 등의 한계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 체계적인 대학원 입학 시스템. 학생들간의 교류의 장 확대. 노후된 시설 교체
- 최상위권 학생들을 타대학에 뺏기지 말아야 하며, 포스코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장학금 이외에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교류, 산업체 견학 등)
- 타 대학과의 교류기회 지원
- 타 대학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또한 서울권 학부 출신으로 대학원 신분으로 포스텍을 내려와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서울권 다수의 대학 혹은 포항 근교 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하지 못하고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타 대학과의 교류가 네트워크 확장 뿐 아니라 우리 대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많지 않은 교류 탓에 자칫 도태될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포카전을 비롯해 다른 대학들과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ex. 동아리 교류, 토론대회, 컨퍼런스 등)이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할수있는 환경개선.
- 학생들의 삶의 질(취미, 수면시간 등) 을 보장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되어야 된다고생각함
-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문화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증설 및 지원.

● 학생

- 포항공대를 설립하면서 '시작은 포스코의 도움을 받지만 미래에는 포스코를 먹여살리겠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을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을 학생들이 만들어야 포스텍이 포스코를 먹여살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로 창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많은 학생이 이런 기회를 잡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포항에 있다보니 사실적으로 다른 학교 또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다른 분야 그리고 다른 학교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교류하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서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 시간과 교통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KTX를 타면 시간적인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통비가 너무 비쌉니다. 교통비 할인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가 지방에 있다는것이 입학전에는 큰 단점이 아닐줄 알았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지만 20대 팔팔한 청춘들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점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와 우리 대학의 라이벌인 카이스트와 비교되어 많은 학생들이 이 점에 대해 불만족,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여러 학생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졸업후 포항을 벗어나는 것을 꿈꾸는 '탈포항'을 목표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타대 대학원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20대를 보내는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인근 대도시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교통비 지원등의 방식으로 포항에서 즐길 수 없는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데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지라도 학생들의 애교심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주어 재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 학생

- 학생들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해외대학 교류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미국 대학의 경우 학비가 지원되는 대학에는 5명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 학생들이 학업이나 연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더 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 3월 뿐 만 아니라 매학기 신입생들에게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행정부분을 빨리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연구나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수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교수님들께 논문의 압박을 줄어드려서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수업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
- 학생의 사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다
- 학생의 활동에 자율성 부여
- 학생이 더 많으면 교내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포항공대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업외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업적인 부분외의 학생 개인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 학업측면의 교류 이외에도 서울권대학과의 활발한교류
- 행정/복지에 대한 고민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 교류. 교내에서 연구실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등.

● 교육

- 1. 거의 모든 교수자들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토론 문화. 창의성보다는 노동시간이나 억압으로 제어하려는 교육 및 연구 방식. 또한 학생들의 어떤 점을 발전시키고 싶을 때 그것을 유도하거나 토론, 기회를 열어주는 형식이 아닌 강제, 법률, 억압 등으로 학생들을 마치 성인들이 아닌 자신들의 권위로서 명분만 있는 토론이나 의견의 창들로 모든 것을 교수자들이 원하는 대로 고정하려고만 함. 점점 창의적인 연구결과를 내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실의 느린 일처리. 연구에 있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기업간의 교류나 물품/기기 구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일처리의 이유없는 잦은 지연으로 인해 논문/학회 기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매우 안일한 태도로 처리하는 방식이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3. 기숙사 처리 방식. 학생들의 연구 및 공부에 중요한 요소 하나는 주거 환경일텐데 기숙사 사감실의 처리 방식은 매우 비효율 적이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 하곤합니다. 반드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일한 일처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건물 및 시설 안전. 이번 5.1, 5.8강진에도 많은 건물들이 온 벽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 없이, 학생들을 교실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적어도 확실하된 안전점검을 한 후에, 그리고 정말로 안전도를 높여 건물을 보수한 후에, 학생들을 연구실, 교실에 출입을 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 학생들에게 안전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의 재점검은 전혀 안하는 학교의 태도가 언젠가 큰 화를 입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요. 학교야 말로 조속한 안전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 소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업에 조금 뒤처지는 학생이 기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일부 교수는 성적으로 학생을 심하게 차별한다.) 2. 교수-대학원생 관계에서 사적인 부탁이나 공휴일 호출 등은 자제. 3. 학습법/연구 노하우 등을 잘 공유/개발하여 원-원하는 학업 분위기 조성.
- 개인적으로는 전공 과목들도 수강생 중에 외국 학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교수님에게나 학생들에게나 모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

- 공대생으로서 소홀해질 수 있는 기본소양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들의 수업능력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들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편(기술은 발전하는데 항상 예전 교육자료 그대로 가르치는 수업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 교수님들의 학생지도 열의가 더 필요할듯.
- 교양 과목 증설
- 교육 환경 개선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학생 (특히 학부생) 교육이 없이 좋은 연구가 나올수 없음에도 학생 교육을 등한시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생각됨.
- 교육에 대한 투자, 개설편과목이나 교육과정 개혁, 타대학 종합대와 경쟁, 비교할만한 투자
- 그저 과제중심의 수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학이나 화학과 같은 과목은 풀 수록 실력이 향상되며, 경영과 경제와 같은 과목들도 풀 수록 감이 생겨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욱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생들을 더 많이 데려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의 외국고전형과 같이 말이죠. 해외에서 살다온 저로서는 확실히 한국 학생들과는 다른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온다면 학교에 '새로운 목소리'와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대학과 대학원의 배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공대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부에는 공부의 과정이, 대학원에서는 연구의 과정이 추가되고 있는데, 좀 더 대학원과 학부사이 교류를 늘리고, 공부와 연구를 더 연계시켜서 추후 대학원 진학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

-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양과목을 통해 과학 외의 지식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화학실험과 같이 소스가 있으면 좋은 학점을 받는 등의 방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공 과목의 교수님들은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수업을 지루하고 재미없이 수업자료를 읽는 정도로 진행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너무 broad 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과목들은 학점 수를 높이거나 학기를 분할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진로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들은 과감하게 안 들어도 될 수 있게 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수강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의 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수업들은 정말 질이 낮은, 정말 수강할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평가 시스템의 강화 등 수업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와의 교류가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비 문제, 체육 교과목 활성화
-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전체를 위한 교육
- 실적과 학업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닌 전인격적인 교육,
- 영어강의 폐지(한글수업), 과도한 커리큘럼 축소, 기초필수과목 선택
- 영어강의 폐지와 더불어 강의의 전달력 향상
- 인문적 소양 강화
- 학생들의 엉뚱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서술형 시험문제. 객관식, 주관식 시험의 폐쇄

● 교육

- 연구 역량에 관한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업 방식에 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 실적 위주 평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수들이 수업에 투자할 시간 및 의지가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간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대외적인 홍보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막상 그 과정을 통하여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학생들이 느끼는 대내적인 소통의 부재 문제의 해결도 대외적 홍보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원초적인 공부에 대한 갈망을 유도해야 합니다. 과제나 이런 것으로 강제로 시키는 행위는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수준을 올릴 수 있을지라도 그 공부에 미친듯이 빠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는 노벨상을 내겠다고 신입생환영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입장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지요. 입시를 통해 들어온 학생들은 결국 공부라는 것은 지옥같은 것, 혹은 상당히 싫은 것이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한데 이 상황에서 무한의 과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요. 이런 점을 고쳐야하는데 그러기에는 힘들겠지요.
- 학생들의 전공 교육 뿐 아니라, 전 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지리적인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문화 프로그램을 열고 교양과목을 한 두개 더 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공 지식만 가득한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바람직한,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인성교육
-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연구

- 연구하기 좋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연구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대학원생 입장에서>

서울대, 카이스트와 비교해서 무엇이 장점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싶다. 연구비에서 오버헤드는 엄청 가져가서 연구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들 주머니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돈부족해야 다른생각을 안한다는 헛소리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화학분야는 배부르고 할일없는 귀족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연구 결과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기에 학교가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포스코가 힘든 상황에서 학교재정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장기적 입장에서 과연 포스텍이 50년, 100년 후에도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분명 뭔가 비교불능한 어떤 높은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역적인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잘 나가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도 안알아주는것을요. 옛날에 초등학생들으 상대로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학교가 세계 28위를 해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니깐 "에이 선생님 거짓말" 하면서 죽어도 안믿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자 사기친다는 반응도 나왔구요. 그 반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무지해서 라고 말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건립30년이 된 입장에서 어떻게 소속 지역에서조차 인정을 못받습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은 좋은 학교인줄은 더러 아십니다.) 어차피 저희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포항에서, 경상도에서, 전국에서 정말 좋은 학교구나 라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 연구실, 기관마다 장비 사용이 좀더 원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비 사용 교육에 대한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노후된 장비의 개선. 형식적인 것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길.. 또한 안전과 시설 점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연구

- 교수 및 대학원 생들이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 물론 비리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감사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 연구 진행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행정 처리가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 교수님들 각자가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연구 결과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음. 실제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카이스트는 사회에서 주목 받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포스텍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라는 말을 많이 들음. 이는 곧 포스텍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혹은 주목받는 연구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함. 교수님들께서는 단순히 본인 분야만 생각어떤 연구를 해야될까 고민하셔야 할 시점이라 생각됨. 우리 학교가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는데, 타이틀에 걸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임.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늦게 찾을수록 포스텍의 성장은 더뎠을 것이라 생각됨.
- 기초 연구 분야 육성
- 논문 수에 집착하지 않고 양질의 논문을 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비전 제시가 아닌 학과 마다 각 연구실 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것.그리고 이를 연차 마다 평가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보다 적극적인 산학 협력
- 연구 성과
- 연구 인프라 확충
- 연구대학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연구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 연구

- 대학원 학비 부담을 연구실 인건비에 의존 하는 것이 타 학교들(국공립 제외하더라도)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이는 곧 연구비 부담에 직결되는 상황이라 신입교수님들 입장에서 연구비 운용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대학원생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최근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유도하고 가치있는 일에 대한 기준 판단에 대한 교육이 늘고 있지만 필수가 아니며, 교수님들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자로서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대학원생들의 교육 및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필수 강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실 노하우가 계속 후배들에게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연구지원
- 연구참여, 인턴십 지원과 장려축제 및 포스텍 카이스트 대제전에 대한 학교의 지원과 관심 향상이 필요
- 오픈랩이 자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상한 프로젝트들에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 줄어들어야하며, 교수들이 최소한 연구에 대해 막연한 강요보다는 차근차근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 학부생에게 있어서는 방학 중 학과간 또는 학과내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전공지식을 직접 응용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학원생에게 있어서는 연구 중의 멘탈케어나 연구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협업능력의 향상, 정해진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실험의 필요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평가기준의 표준화 필요, 서울에 집적되지 않은 교환학생 제도의 수정

● 행정

- 여학의 생활편의 개선, 대학원생 위주의 편의시설, 교육환경 지원
- 노후화된 시설 교체
- 아이있는 여성분들을 위한 시설
- 학생들과 교육에 투자하고 좋은 연구 환경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시설
- 편의 시설이나 휴식 공간 등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내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이와 같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 9년정도 학교서 지내온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에 비해 학생에게 지원한 돈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전에 500억인가 50억인가 손해본 이후로 줄어든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 기업이나 개인에게 받는 기부금이 늘어나야 한다. 사립 대학의 특성상 대학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했을 때 포스코 지원도 현재 미비한 상황에서 들어오는 돈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 대학법인의 재정적 안정성(총5건)
- 돈문제... 포스코가 휘청거리도 자립할 수 있는 독립 재원 확보
- 안정적인 재정상태와 그에 따른 지속적 지원이 있어야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학교에 애정을 느끼고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외부에서 포스텍 재정에 관해 좋지 않은 전망을 쓴 기사들을 봄.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행정

- 자금에 대해서 흔들리고 매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육에 영향받지 않는 기금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자금운동을 잘 하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해주세요.
- 재정적 문제 해결 - 졸업생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함
- 재정적인 부문에 있어서의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학업적인 부문에 있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적자 해결.. 대학이 발전하려면 자본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팔고 있다거나, 포스코 주식은 팔지 못하게 되어있어 10년 후가 걱정된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교수 유출. 최근 전도 유망한 젊은 교수님들이 다른 학교로 많이 가시는 걸로 압니다.
- 포스코의 경제상황과 연관없이 재정적 독립. 교수님들의 유출 방지. 대외 홍보가 필요 (카이스트와 서울대는 알지만 포항공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음)
- 학교 예산 문제가 시급해보입니다... 또한 이제 학교 체제도 점차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학교도 이에 유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 기숙사에 내진설계 필요합니다(총3건)
- 실험실 안전 및 학생들에 대한 생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 요즘 지진문제로 안전이슈가 많은데, 대학원을 보면 안전불감증이 심각해보입니다. 교수님들부터 발벗고 미리 위험상황에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 위급상황에 대한 대피 및 대처가 느린 편이다.

● 행정

- 이번 지진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한반도의 역대 최대 규모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휴강 및 점검을 고려하지도 않고 수업을 강행하는 점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되어있는 건물도 있고 피해가 있는 건물도 있는데 그 건물안에서 그대로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말만하는 것이 아닌 발빠른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 지진대비합시다;; 학교차원의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진에 대한 명확한 대비-즉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알씨동만 방송하지 말고 학교 모든 실험동, 기숙사에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홍보도 덜 되어있고 지역의 고립성을 고려할 때 학생 복지에도 신경 써주세요
- 철저한 안전사고 매뉴얼 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이번 경주 지진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뉴얼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지진후 건물 안전성 검사는 했는지 모르겠다. 했다면 어떻게 일이 처리 되었고 결과는 어떤지 구성원들 전체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나면 과연 교내 많은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통제는 가능할 지 의문이다
- 빠르고 정확한 행정처리와 의견수렴. 학생을 어린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성인으로 동등히 취급하는 태도셋다운제, 학생활동 학점 제한 논란과 같은 사태는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의 조용한 처리 등의 구식 사고, 업무방식을 버리고 활발한 소통과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비일상적인 업무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구관련 행정처리에 있어서, 연구실 자체에서 고용하는 경리가 아닌 전속 부서가 존재하여 원생의 업무를 줄여주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직원을 더 뽑아주세요.

● 행정

- 산학협력단 행정 시스템에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업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과제를 진행할 때, 당연히 산학협력단이 이해해야 할 내용을 대학원생이 업체와 대신 얘기해서 이해를 해서 다시 전달하는 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내 문제가 터졌을 때, 기타 동레벨의 타대학(서울대, 카이스트)에 비해 학생의 고발이나 비판글을 SNS 등에 올렸을시, 내리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등. 강압적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들을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 (기숙사 내 게임 제한 등) 이런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끼리의 의견만 모아서 보고 발전하는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쟁학교의 성공사례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복지시설 또는 학교의 지원체계가 어떤지 조사하고 그 이상의 것을 만들고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면 조금 더 만족도 높은 결과가 나올것 같다.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최소한 카이스트나 서울대의 좋은 제도들을 차용하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 저는 15년도 겨울(연초) 학교 교류행사를 하였던 학생입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통보 받고 5만원 가량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뒤,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생지원팀에서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뿐이었습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의 상위권 학생들 및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급으로 교직원 수준 향상 필요 젊고 유능한 교직원이 채용되어도 폐습에 젖어버리거나 그 장벽에 좌절하여 안일하게됨.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시간이 필요함. 몇몇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교직원이기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기상청 슈퍼컴퓨터는 세계 최고지만 운영은 후진국 수준,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상중계청.오래 전 옴브즈만제도만 잘 수행되었어도... 출범은 화려하게 유지는 유명무실 문제점을 논의할 곳이 없는 것을 느낄때 이미 그 시스템은 퇴보 중 이러한 의견도 최상위 결정권자에게 반영되기 전에 중간 실무선에서 차단되는 것이 현실이고 대한민국이 어디든 다 똑 같다고 다들 그렇게 살는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모두 세월호 선장이며, 도약보다는 정체이며 퇴보.

● 행정

- 행정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 에게 행정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서 학업 및 연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행정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행정 직원들의 업무 처리상 과실 등으로 인해 학생에게 크고 작은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내의 교수님들은 연구 측면에서 대체로 뛰어나시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뛰어난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교수님들이 지나친 권위의식으로 학생들을 억눌러 자유로운 학습/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에 이릅니다. 학교 전반적으로 학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학생들이 학업 이외의 방면에서 자기계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은 학업 이외 분야의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교육과정상 학업 부담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학부생조차 동아리활동, 동기 및 선후배간 교류, 대외활동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전공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식견, 자기관리, 다양한 경험 등이 중요한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무시한 채 학업에만 치중하면 학교에서 강조하는 '리더'와 같은 인재상보다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정 및 정책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더 귀담아 듣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모로 개선되고 있지만, 전 총장님 임기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학교 측의 입장만 밀어붙이는 일이 많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학교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학생회의 목소리를 학교 측이 너무 가볍게 듣고 흘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비스를 비롯한 학교 전산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지만, 포비스는 여전히 느리고 호환성이 부족하며, 특히 학부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포비스 시스템 전반의 속도를 개선하고 인터페이스를 보다 직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학교/학과 및 지도교수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주변 흐름을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원에 와서도 주체적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진학 및 취직 등에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도교수 차원에서 원하는 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

- 안전 부문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 및 학과 차원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안전교육 등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안전수칙 등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물론,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개선이 어려운 것도 있으나, 위험요소가 많은 학교 환경에 비해 안전에 대해 학교 전반적으로 대처가 미흡해 보입니다. 이번 지진때도 피해현황 파악에만 급급해서 학생들에게 실험실에 남아있어 달라는 방송이 나와서 대피에 혼선을 빚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기 대처를 위해 전 학교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평소에 실용적인 훈련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훈련은 수업/연구보다 크게 중요시 해서 수업이나 연구로 인해 안전 훈련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텍에 10년 가까이 다니며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라는 포스텍에 들어올 때만 해도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 대해 실망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난 졸업하고 흑여 떼부자가 되더라도 이 학교에 기부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야겠다. 재학생 후배 개개인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할지언정 학교에는 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학교 역시 재학생/졸업생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에 부족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후원하고 싶은 포스텍이 되기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행정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 특히 인문사회학과, 주거운영팀 - 행정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 전시행정을 없애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주거운영부 등 일부 행정부의 일처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그에 대한 불만들이 쉽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 행정처리 단순화 공동 연구장비 지원 확장 기숙사, 체육관 등 부수적인 요인들로 인한 업무 효율 향상

● 리더십

- 30주년을 맞아 더 큰 목표를 지니고 나아갔으면 한다.

- 다음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고민

권위주의 탈피 및 지도자(총장 및 보직교수)의 명확한 비전 제시, 무사안일주의 탈피. 특히, 기존 제도 개선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교원, 직원, 학생 간 소통 및 논의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함. 또, 모든 구성원이 특정 교내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나 장기적으로 문제의 개선안을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6년 반동안 겪은 바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 행정의 일처리는 무난한 편이나 대체로 직원들이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잘 없고, 요청한 일에 대해서만 딱 해결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음. 서비스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 불편한 행정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하거나, 구조적으로 접근성이 더 좋아지게 하는 노력이 미흡함을 느낌.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특정 부서가 있음. 대표적으로는 주거운영팀이 이에 해당함. 기숙사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내 게시판에 건의하면 주로 글을 내려달라는 연락이 많이 옴. 이는 그 문제 한 건만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지는 없어 보임. ex. 매년 언급되는 DICE의 소음 문제, 기숙사 시설 소보수 문제, 주거비 인상 시 타당한 근거 제시 요구 묵살, 냉난방 탄력 조절 문제 등.

● 소통

- 학교의 정책 구상 및 실행에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총10건)
- 1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신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뭐 하라고 해서 하는가보다..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너무 힘들고, 이번에 뭔가 한다고 하는 Flipped Learning의 경우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혁신적인 것이 맞으나 그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저는 대학에 와서 학업에 흥미를 거의 잃은 편입니다. 궁금한 것을 더 캐낼 수 있는 식의 배움이 아닌,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는 수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기심은 사치고 쓸데 없는 것이고 친구들이 보기에 나대는 것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습니다.
- 1)학내구성원과의 소통 2)학교평판 높이기 3)다양한 장학금 개설(성적장학금, 교재보조비, 영어학습비 지원등) 4)문화생활 지원(연극, 뮤지컬등)
- 1. POVIS 접속방법의 원상복귀 개별 학생/교수 모두가 포비스 접속을 위해 낭비하게 되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 이전의 메일시스템 변경과정에서의 많은 문제들 등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는 것을 지난 6-7년간 보아왔으니, 이를 개선하여야 도약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1. 교수님과 수강신청 등을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고, 선후배간에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SMP 같은 제도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요즘 지진이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생활관이나 학교 시설을 천천히 내진 설계가 된 건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 다양한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과의 교류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지원이나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KAIST와는 교류가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

- 1.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영어 공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top-down 말고 bottom-up으로 구성원들 특히 학생의 바램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 대학 홍보
- 다른 구성원들과의 격의없는 소통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뢰
- 대학 정책 수립 & 변경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 교수, 직원, 학생 들이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자기의 입장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상대의 입장도 잘 들어주어 더 나은 방향을 위해 토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학교 행정이 대체로 일방적이라고 느껴진다.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 건물, 장비, 시약 관리 등의 안전관리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사고 발생 시에 대처가 느리고 공지가 잘 안 된다.
-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들 간 벽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러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교수,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있으므로 그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기 편한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 오랜기간 학생식당 하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작은 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대한 기획을 하기보단 작은 것 하나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작은 것 하나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주지 못하는 곳과 학생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 소통

- 먼저,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은 학습하는 곳이지만, 축제 혹은 새내기배움터 등에 대한 지원이 기존보다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면 좀 더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재정상의 문제로 이에 대한 투자가 힘든 상황이라면 축제, 새터 등의 행사 비용을 목적으로 졸업생들의 기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을 선배들이 기꺼이 참여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타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는 축제, 새터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교과과정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고, 과고, 일반고 학생들은 입학 초기에 큰 격차가 있음을 실감합니다. 저 또한 이를 느꼈고, 단지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놓치게 될 잠재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서히 터득하게 된 2학년 3학년 때에도, 1학년 때 미숙하여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학업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좋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좀 더 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셔서 학업을 따라가기 벅차하는 친구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우리 대학이 가장 부족한 점은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섯다운제나 기숙사비 인상등의 문제가 있겠지요.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대학이 예전만큼 상승세가 있지 않다는 거, 오히려 굉장히 기본적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이라던지 연구활동 지원이라던지, 제정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오히려 좋게 포장하려고 해서 내부에서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노력할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같이 화합하는 학교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원활한 연구를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통

- 위에서 아래로의 단방향적인 의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윗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면, 불이익이 오거나 언짢아하는 분위기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쪽 높으신분들과의 소통.
- 이런 설문조사를 다방면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 학생회간 학생회 학교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학부 졸업 대학원 진학자로서 학부 생활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런 익명 설문조사의 활성화 및 피드백 반영
- 조금 더 학생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음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주인의식도 생기고 애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됨
- 평소에 이런 문항들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만드시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등 학생들이 학교에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과 내 교수님과 학생간의 교류의 빈도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수간의 교류와 화합할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 학교가 추구하는 바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추구하면 좋을 것 같다. 다들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달라 명확한 방향성이 적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 학교와 학생 사이의 신뢰 회복 학생들의 학업 능력 - 장학금과 평군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해 안일한 것 같습니다.평가과정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매년 겹쳐서는 안 됩니다.

● 소통

- 학교의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인 것 같습니다. 대학의 이미지는 결국 소속된 구성원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아무리 대외적으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힘을 쏟아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하는 점을 적절히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설문조사와 같이 학교 구성원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이 보다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의 명성이나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교수와 학생 선후배간에 잘 못하더라도 서로 인정해주면서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학생, 교수, 직원의 원활한 소통
- 학생과 소통하는 대학, 중요한 문제 (단일계열 전환 등 중요한 학내 사안)에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들어려는 시도를 해야한다. 갑자기 얼마 전에 취임한 총학생회장 불러놓고 골랑 한표 행사하게 해서 학생의견을 반영했다는듯 하는 지금의 학교의 태도로는 절대 포스텍은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사항이 있지만 이만 줄인다.
- 학생과의 소통을 하고 대학원생들의 인권보장
- 학생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학생들이 있기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직 학교를 잘 모르는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를 알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후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항상 학교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

-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총8건)
- 교내원의 애교심 향상과 더불어 외부 노출
- 대내외 이미지를 잘 쌓아야 할 것이다. 갈수록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포항이라는 지리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생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더 많은 대외홍보를 통해 우수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을것이라 생각한다.
- 사회적으로 광고및 많이 알려야된다.아직도 사람들이 포항공대를 잘모르고 우리학교를 폴리텍등 이상한द्या학 이랑 비교한다는게 자존심상한다.
- 세계적 인지도
- 실제 활동이나 업적에 비해 직원,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인지도나 소속감 등을 높이려면 어느정도는 보이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보이는 것에만 신경쓰는 것은 지양해야하지만 너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좋지않다고 생각한다.
- 아직 국내외적으로 우리학교의 평판도나 인식정도가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 대내외적 홍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 총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들 중 일부가 대학의 기업화를 촉진해 대학의 본질인 교육이 흐려질까 걱정된다.
- 아직까지는 지리적인 영향인지 수능을 통해 올수 없어서 그런지 서울대나 카이스트 만큼 현재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없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홍보등을 통해 대학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언론을통한홍보. 포항공대라하면 전문대 다니는줄알고있음

● 홍보

- 언플 좀 합시다. 카이스트에게 유일하게 배워야 할 점임
- 외부 홍보 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간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함. 그리고 학생들은 포항공대 학생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에 맞는 지적 수준, 매너를 갖춰야 함.
- 우수한 신입 학생 선발을 위해 대외 이미지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활동 분야의 실적 뿐 아니라, 재학생의 즐거운 학교 생활 모습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대탐험 등의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인들에게 인지도 문제 해결, 타다 학생간의 교류활동들이 필요하다
- 조금 더 다른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학교의 안 좋은 점들은 바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그래도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작은 학교인데 정보적인 면이나 다른 부분에서 뒤쳐진다면, 계속 뒤쳐질것이다. 또한 취업정보 같은것도 학교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밀어주었으면 좋겠다.
-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등의 대외적 홍보를 늘려야할 듯. 비슷한 대학인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비하여 포스텍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 홍보를 늘림으로서 인재 유치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 기부 등을 늘릴 수 있을 것
- 지방의 작은 대학, 몰락하는 귀족 같은 느낌의 대학 이미지 개선 필요 /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수도권 학생들이 오기 불편함)
- '카이스트' 하면 어렸을 때부터 드는 이미지들이 천재들이 가는 곳 이런 느낌이었고, 대외적으로도 활동이 많아 '오현민'같은 스타를 배출해 내면서 그 이미지를 굳혀갔는데, 우리 학교는 그에 비해 그러한 대외활동이 적은 것 같다. 또한 생각외로 이과 자녀를 둔 부모들은 포스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반면, 어르신들이나 그 외 분들은 카이스트는 알아도 포스텍은 모르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다. 글로벌한 평판을 우선시하는 우리 학교이지만, 그 전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를 알리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홍보

- 우수한 역량에 비해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홍보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비해 인지도나 네임벨류에서 꽤나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저희학교가 어떤 교육환경 속에서 어떤 학문을 하고 세계속에서 어떠한 권위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나 포스코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공업에 관련된 기술전문 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는 전문대니?' '넌 기술 배워서 자격증 같은거 따겠네?' '거기서 잘하면 다들 포스코에 취직하니?'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반수를 하는 제 친구도 어떤 타 학교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하는 커리큘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게 싫어 다른 학교를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업체나, 우리학교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겐 그 가치가 충분히 알려져 있음을 잘 압니다. 또 학교의 이름을 신경쓰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 개발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것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학벌이 꽤나 중요시 여겨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그 우수함을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높은 인지도와 훌륭한 사회적 평판 속에 기부금도 많이 받고, 과학과 공학을 사랑하는 꿈나무들이 어릴 적 부터 간절한 목표로 삼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도 다소 좋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RC 같은 건물이 한두 채만 더 있어서 방학때 굳이 짐을 옮기지 않고도 전 학년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편협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고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참고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포스텍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타 기관이나 선배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기(적어도 카이스트만큼의 명성은 있어야하는데 인지도 차이 큼)
- 포스코와 숙명을 같이 한다는 편견을 깨고, 자체적으로 연구성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립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구축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

- 포스코의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연구중심대학이란것을 더욱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재정상황에 우리학교도 많은 타격을 받는데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의 실력으로 연구자금융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다른 유명대학처럼 교직원들의 수준이 한 층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지방에 있는 소도시라 유능한 직원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해주는 분들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것이 사실. 이를 인정하고 현재 직원들께서 정년퇴임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대학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시거나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포스텍은 타 대학에 비하여, 홍보 활동에 덜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광고 또는 티비 광고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첨연을 하자면,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 확충 또는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 홍보 및 지역적 단점 극복
- 학교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해외에 나갔을때 우리 학교를 아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작은 나라에 규모가 작은 학교라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좀더 학교이름을 알리는데 신경을 써서 해외의 대학과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 기타

- 우리나라 내에서의 다른대학과의 경쟁의식이나 비교보다는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목표로 조금 더 나은 세계유수의 대학들의 교육체계, 시스템 등 장점들을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복지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주변에 좀 더 인구가 모일만한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주변시설
-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나라가 발전해서 대부분 졸업할 시기가 되면 차가 생깁니다 학교면적의 95%가 자연인것 같네요 주차장 좀 지어주세요 제발.
- 열악한 환경 개선 조용한 도서관 뿐만 아니라 토론을 하거나 조금 더 자유롭게 갈 수있는 다양함 자료가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속기로 중간지점 부근 하수도가 막혔는지 하수구에서 물이 계속 역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물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보단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 밤에 수업이 있거나 도서관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로에 가로등이 더 밝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학교 내에 간단히 사먹을 수있는 먹거리 피는곳이있으면 좋겠다
- 더 편리한 교통편
- 지방에 있다는 단점 탈피
- 지방에 있음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단점들을 이길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학교와 교류를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리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수도권 인재 확보를 위해 지리적 요인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 지리적 단절의 해결.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학부-대학원 과정을 수행하는 기간 (10년 내외)동안 서울의 지인과의 네트워크 유지가 어려우며, 졸업한 동문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또한 쉽지 않음. 아무리 KTX를 탄다고 해도 왕복 11만원의 비용과 6시간의 시간을 길에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음
- 지리적 한계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력중인 것 같긴 하지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타지방으로라도 시간적, 비용적인 부담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KTX와 비행편이 생겨 좀 더 빠르게 타 지역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학생 할인이라던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좀 더 부담을 덜어 준다면 지리적 한계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내에 한국 애플스토어 1호 설치
- 노벨상 배출
- 사회 문제의 관심
- 생활시간이 밤 늦게 까지 지연되는 것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 선택과 집중
- 연구와 학업을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학교는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보상을 얻으려면 꾸준한 노력과 한발 앞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왜 POSTECH 이어야만 하는가? (카이스트, 서울대 대비 장점 및 차별화포인트)
- 음 확실한 답변은 내려드릴 수 없으나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쓰면 어떨까요!

● 기타

- 의예과 대학원 설립. 현재 동물실험 등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와야 하는 일이 너무 잦은데 이러한 시간, 돈 등의 자원 낭비를 축소시킬 수 있음. 동시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을 학교로 더욱 모을 수 있어 의과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 우수 학생들이 타 대학교의 의예과로 편입하는 것 또한 줄여 인재 유출 또한 방지 가능하다.
- 이 질문에 부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 관련 학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치중된 학교의 분위기 및 방향성이 자칫 편협한 시각을 가진 학생들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좀더 체계적이고 옛 것에 대한 것보다 새로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거 같다.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을 고용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포비스가 타대학 학생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불편하고 별로임
- 프로그래밍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더욱더 컴퓨터에 관련한 일이 많아 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 학교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우수대학에 비해 교육 실적이 결코 뒤쳐지지 않으나 그에 비해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깊이 있는 지식은 배울지언정 다양한 지식 다양한 꿈을 쌓을 만한 환경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학교가 소수점에이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행복하게 우수인력을 많이 배출하는거
- 현재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총2건)
- 확고한 미래를 위한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방향설정을 위한 교수총원
- 여유있는 삶



개교 30주년
포스텍 구성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포스텍 구성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2016. 11

POSTECH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http://tjpark.postech.ac.kr>